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지 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미적체험 영역에 관한 분석 연구
-현대 미술 작품 분류를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박 경 순

고등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
미적체험 영역에 관한 분석 연구
-현대 미술 작품 분류를 중심으로-

김 지 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박 경 순

인 준 서

박경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미술교육은 표현력 신장, 창의성 기르기, 다양한 미적체험을 통한 미적 안목 기르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표현 수단 중의 하나가 미술이라고 본다면, 미술교육은 자아개발, 자아 신장을 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 성장 발달과 인격 형성에 깊은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교과와 마찬가지로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도 역시 바람직한 인간 형성이 될 것이다. 이 바람직한 인간이란 지, 정, 의를 골고루 갖추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느낌은 갖는 것에도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느낌은 감정과 지각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몰아의 정서를 자극했을 때 일어나게 되며 이것은 미술의 미적체험 상태와 동일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미적체험은 미적 대상을 만나 감각적인 쾌감이나 만족감을 동반하게 되는 것으로 그것을 관조하는 사람의 반응과 함께 정서를 환기시킨다. 주체가 객체를 바라보며 직관 또는 직감의 태도 속에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실현되는 특수한 심적 태도와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인적인 활동은 그 횟수가 많을수록 미적 안목을 높이며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미적 체험이 미술수업 현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고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선 교육현장에서 제일 처음 사용되어지는 교육매체인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미적 체험 영역에서 현대미술의 이미지를 분류,정리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미적 체험의 성격과 미적 체험의 필요성을 분석 및 정리하였으며

제Ⅲ장에서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출판사별 미술교과서의 미적체험 영역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현대 미술의 개념 및 미술교과서의 미적 체험 영역에 속한 현대 미술을 분류, 정리하였다.

제Ⅳ장은 Ⅱ,Ⅲ장의 연구를 토대로 결론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일생은 불과 수십 년이며 그 중 미적 체험을 하고 감동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미적체험에 대한 교육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미술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식을 미술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제언에 불과하지만 이 연구가 후속 연구에 조금이라도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5
1. 미학적 이해	5
1) 미적 태도	5
2) 미적 체험의 개념	8
① 미적 체험의 개념	8
② 미적 체험의 특성	10
③ 미적 체험의 활동 형식	13
3) 통합적인 것으로 확장되는 미적 체험	14
4) 미적 체험의 개념적인 흐름	17
① 고대	17
② 중세 및 르네상스	18
③ 18세기	20
④ 19세기	22
⑤ 20세기	23
5) 미술교육에서의 미적 체험에 관한 논의	24

2. 미적체험의 기능.....	24
1) 인간 정서의 회복의 미적 체험.....	24
2) 표현과 감상의 모태로서의 미적 체험.....	26
3) 미적 안목 성장으로 생활 미술인 육성.....	27
4) 삶의 방식으로 가치.....	29
III. 제7차 교육과정의 미적 체험 영역 분석.....	31
1.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 분석.....	38
2. 8종 교과서 미적 체험영역 분석.....	50
3. 현대 미술에서의 미적 체험.....	55
1) 현대미술의 동향.....	55
2) 현대 미술의 양상.....	57
① 현대미술에 대한 정의.....	57
② 추상미술.....	59
③ 설치미술.....	61
④ 공공미술.....	62
3) 현대 미술이 미적체험 영역에서 보여질수 있는 활동.....	63
4. 교과서 속의 현대 미술 분류.....	64
5. 미적 체험영역의 문제점.....	75
IV. 결론 및 제언.....	76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목차

<표-1>미술과 영역 고등학교 목표	34
<표-2>미술과 영역 내용체계	35
<표-3>교과서의 종류	37
<표-4>교학사 단원별 내용	38
<표-5>교학연구사 단원별 내용	40
<표-6>금성출판사 단원별 내용	43
<표-7>대한 교과서 단원별 내용	44
<표-8>두산 단원별 내용	46
<표-9>삶과 꿈 단원별 내용	48
<표-10>시공사 단원별 내용	50
<표-11>천재교육 단원별 내용	53
<표-12>교학사 미적 체험영역 현대 미술 분류	65
<표-13>교학연구사 미적 체험영역 현대 미술 분류	67
<표-14>금성출판사 미적 체험영역 현대 미술 분류	68
<표-15>대한 교과서 미적 체험영역 현대 미술 분류	69
<표-16>두산 미적 체험영역 현대 미술 분류	70
<표-17>삶과 꿈 미적 체험영역 현대 미술 분류	71
<표-18>시공사 미적 체험영역 현대 미술 분류	72
<표-19>천재교육 미적 체험영역 현대 미술 분류	7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 시대와 교육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한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으며 2010년 제7차 교육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개정안의 큰 특징이라면 제6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미술과 생활’ 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독립되어 ‘미적체험’ 영역을 구성하는데 큰 특징을 두며 교육과정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술교육은 다른 교과처럼 결코 지식을 쌓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교육이 아니다.

그렇다면 미적 체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적 체험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미적 체험은 미술교과 속에서 학생들이 미적 안목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동시에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력을 배양시켜준다. 이러한 미적 체험과 관련이 있는 미학은 서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교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술교과에서는 미적 체험 영역을 통해 미적 안목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며,¹⁾ 또한 7차 교육개정안 시행으로 미적 체험 영역을 더욱 확대 발전하려고 하고 있다.

시각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탈산업화, 정보화, 국제화, 다양화의

1) DBAE(Discipline Based Art Education)에서는 미술 교과를 미학, 미술창작, 미술사, 미술 비평으로 구성하였으며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DBAE의 구성을 기본으로 미학은 미적 체험으로, 미술창작은 표현으로, 미술비평과 미술사는 감상으로 영역을 구성하고 표현 활동에 치중해온 지금까지의 미술교육에서 결여되었던 미술 이해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임정기, 『미술과 교수·학습 이론의 발전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공동연구소, 2001, P.513

특징을 가지며 21세기는 가치가 혼재하는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변화의 가운데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인간이 기계화되고 기계가 인간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 일 것이다. 인간형성에 있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 한 인간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끔 도와주고 전인적 인간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원만한 인간은 지·정·의가 조화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우리는 정감과 가슴을 잃어버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즉 개념에 의해서만 파악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전류공감’이 사라진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상황을 미술 언어로 표현한다면 ‘미적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현대는 미술마저도 미적 체험으로 향수하거나 가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키고 소유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는지도 모른다. 미적 체험과 미적 교육은 이런 상황을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삶으로 전환시키고, 보다 인간적이고 심미적인 감성을 갖도록 하여 존재의 새로움을 일깨워줄 것이다.²⁾

이처럼 중요한 미적 체험은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어 지고 있으나 정작 미술 과목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적 체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수업설계를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인 수업매체로 알려진 미술교과서를 통해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을 파악하여 분석·정리 하였다. 또한 현시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현대미술이 미술교과서에서 어느정도의 분량을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정리하였다.

2) 임정기, 이성도, 김향기,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PP.25-26 재인용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까지의 미술과 교육과정 중 미적 체험 영역의 내용을 알아보고, 현재 출판·사용되어 지고 있는 8종의 미술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검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현대미술영역 또한 비교·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미적 체험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적 체험 교육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분석·검토하고 나아가 현시대에 있어서의 미적 체험교육의 의의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둘째, 현대 미술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시대의 미술 교육에서 현대미술이 미치고 있는 영향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미술교과서에 미적 체험 영역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미적 체험 영역에 속한 현대미술 부분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학, 미술교육학, 미학, 미술비평, 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는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의 미적 체험 영역을 중심으로 제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과 개정안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고등학교 8종 교과서의 미적 체험 영역에만 한한다.

둘째, 미적 체험과 현대미술의 개념적인 부분은 미학과 예술학의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셋째, 현대미술 영역은 교과서의 미적 체험 영역 안에 제시된 이미지들에 한하여 분석·검토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학적 이해

1) 미적 태도

태도라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방향 짓게, 혹은 조정하게 하는 한 가지 방식이며, 미적 태도는 세계를 지각하는 우리의 지각 방식을 결정하는 하나의 태도이다. 그리고 미적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미적 태도가 전제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어렴풋이 흘려버리는데 비해, 다른 어떠한 것들에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처럼 우리의 주목(attention)은 선택적이다. 이러한 생각이 일단 수용되면, 우리는 인간 존재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단순한 수동적인 수용자라는 오래된 개념에 부적절함을 깨닫게 된다. 더구나 우리가 주목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떠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 즉 우리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한 목적을 향해 가게 된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의 기관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과 손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간파하는 주목을 하게 된다. 각 개인이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며, 각 개인 스스로가 주목한 것 역시 확연히 달랐다 하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의 주목에 초점을 맞추는 대상을 다른 한 사람은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하나의 태도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조직하고 방향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적 태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실용적인(pratique)’ 지각의 태도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계 속의 사물들을 우리의 목적에 이용하

기 위해 그것의 실용성에 따라, 혹은 저해할 수 있는 그 힘에 따라 ‘그것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의 관점에 따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습관적으로 행하며 한계가 있으며 부분적이다.

그렇지만 지각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전적으로 실용적인 것만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그것이 보여지는 대로, 듣게 하는 대로, 느끼게 하는 대로, 그 방식 그대로 그저 즐기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다. 이것이 지각의 ‘미적’ 태도이다. 이러한 미적 태도는 사람들이 연극이나 소설에 흥미를 보이고, 혹은 음악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로서 자유롭지만 무의식속에 목적을 둔 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적 태도는 실용적인 지각 활동 속에서도 일어난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우연히 우리의 눈길을 돌려 관조하게 되는 경우이다.³⁾

미적 태도는 다른 태도들과 구별되는 미의 체험 주체 즉, 지각자의 특별성에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한 기본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살펴보자면 이지적 태도(intellectual attitude), 실질적 태도(practical attitude), 미적 태도(aesthetic attitude), 종교적 태도(religious attitude)로 구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곡의 맑은 시냇물이나 하늘에 뜬 구름을 본다고 할 때 자연 과학자나 가상학자라면 물이 수질오염도나 구름의 구성성분 쪽으로 이지적 태도를 가지고 탐구할 것이며, 등산가나 산간에 사는 초부(樵夫)에게는 갈증 해소와 생활용수의 실제적 태도로서 유용성에 대한 가치로 판단 될 것이요, 종교적 태도를 가질 때는 주물주의 창조물로 위대함과 신비로움에 쌓여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적 태도로 대할 때는 대상의 유용성이나 제 관계의 분석과 같은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체가 일상의 모든 관심과 욕망

3) 이은적, 「미적 태도, 미적 체험의 개념 이해와 미술교육적 논의」, 2003, PP.191-192 재인용

을 떠나 무관심적 공감적(disinterested sympathetic)인 관조적 태도(contemplative attitude)로써 이를 아름다운 것으로 향수하게 된다. 그리하여 직관적 인식을 통해 미적 정감을 우리의 내면에 환기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시냇물이나 구름을 볼 때, 지적 호기심이나 그 대상의 유용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무관심적 태도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의 눈을 매료하는 아름다운 형상이나 색채를 미적 정감으로 환기하게 되며 이를 맛보고 즐기게 되는데,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역시 이와 동일한 체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⁴⁾

위에서 ‘무관심성 공감적’이란 말이 언급되었는데, 무관심이란 어떤 배후의 목적을 지니지 않은 관심(interest without ulterior purpose)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을 윤리적·정치적·쾌락적 목적으로 대할 경우 무관심적 태도라고 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태도가 아니며 목적을 지니지 않은 관심, 즉 ‘공감적’이란 것이다. 공감적이란 어떤 대상을 대할 때 그 대상을 그 자체의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대상 자체의 구조나 목적에 맞추어 대상을 대할 때 그러한 태도를 공감적 태도라고 한다.⁵⁾

대상을 미적으로 감지하는 것은 그 대상이 매력적이든, 감동적이든, 생생하든, 혹은 이 모든 것이든 간에 이것은 개별적 특질(individual quality)을 음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상을 그렇게 감상하려면, 우리는 대상을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on its own terms)’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대상에 대해 민감(receptive)해져야만 하고 그 대상이 지각에 제공하는 것이라면 모두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고정(set)’해야만 한다. 따라서 대상에 대해 ‘공감적이지 않고’, 우리를 대상과 분리시키거나 적대적으로 만드는 반응들은 억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실한 회교도인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4)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29

5) 김진엽, 『미적 체험에 대한 미학적 이해』, 미술교육논총 11집, 한국미술교육학회, 2001, P.3

에 대한 반감 때문에 ‘성가족(holy family)’을 그린 그림을 오래 보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우리는 어떤 소설책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나 ‘사고방식’과 상충하기에 집어던지곤 한다. 우리는 책을 미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책에다 이질적인 자신의 도덕적 반응이나 다른 반응들을 부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적 태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소설이 “미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소설을 미적으로 고려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미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유도를 따라야 하며, 대상과 일치하여 반응해야 한다 (Jerome Stolniz 저).⁶⁾

정리해 보면 앞서 언급한 미적 태도는 다른 일반적인 태도들과는 구별된다. 구별로 인해 우리는 그 것을 미적 태도라 명명한다. 이 미적 태도는 무관심적 공감적인 관조적 태도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각자와 미적 대상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2) 미적 체험의 개념

① 미적 체험의 개념

미적 체험(aesthetic experience)이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sensory enjoyment)의 경계를 넘어 미적 가치 체험이라는 의미로서 인간 내면의 깊은 영혼의 울림을 동반한다.

미적 체험이란 미(美)를 궁극적인 가치내용으로 하는 직접적인 가치 체험(價値 體驗)이다. 객관성, 보편성의 요구를 함축하는 이른바 경험(empirismus)과는 달리, 인식의 출발점으로서 인격적, 개성적 주관성에 그

6) 오병남 역, 『미학과 비평철학』, 이론과 실천, 1991 P39, P.40

존립 근거를 갖는 체험(erlebris)이다. 이러한 체험은 미적 가치대상에 대하여 이에 적합한 미적 태도를 갖는 주체와 객체와의 상관관계 하에서 성립되는데 이 경우 주체의 미적직관 작용과 미적 정감 작용에 의해 성립된다.⁷⁾

즉 미적인 대상과의 지각자와의 만남의 관계가 미적 체험인 것이다. 미적 체험은 대상을 통해서 미를 발견하고 미적 감동을 내면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적 체험과 미술의 관계는 대부분 대상과 미적 지각자와의 시각적인 만남만으로 좁게 생각하고 있다. 미적 체험이 다른 모든 감각기관을 통한 만남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교과와의 차이점을 보자면 시각적, 물질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체험의 방법에서 시각적인 체험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타당하기에 미술과의 관계만으로 언급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을 둘러싼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감상할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과 조형물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키움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해야한다. 미적 체험은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인 것이다.⁸⁾

브라우디(Broudy. H)는 미적 체험은 다른 교과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쉽고 상징화된 언어나 숫자에 의한 개념적인 사고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경험이므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의 근원적인 지각이나 감각작용이며, 상상에 의해 대상을 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기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적 체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생동감 있고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⁹⁾

7)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35

8) 이화식, 「미적 체험 영역의 분석과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5, PP.7-8.

9) 이수경, 「국민학교 저학년 교육을 위한 미술적 접근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또한 미적 체험은 일상적이고 습관화된 체험과는 다른 응집성과 풍요로움을 우리의 체험에 가져다주며, 우리의 선입견과 전제들을 물음을 제기하여 그것과 대면하도록 만들며, 세계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우리를 개방시켜주는 세계 체험의 한 영역이라고 한다.¹⁰⁾

미적 체험은 일상 경험과 다르게 비현실적이며 무의미할 수 있으나 이렇게 미적 대상물과 지각자와의 특별한 만남으로 시작되는 체험인 것이다.

② 미적 체험의 특성

미적 체험은 인간이 만든 조형 작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에 인공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포함한다. 미적 관조를 통한 미적 체험(미의 발견-향수)은 존재의 발견이다. 그 존재의 발견은 존재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모든 사물(존재)들이 독자적인 생명과 그 성질을 유지하면서 절대적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절대적 아름다움은 원융(圓融)과 조화(調和)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개체 하나하나가 그대로 아름다움이고, 그 개체들이 모인 전체 또한 아름다움인 것을 뜻한다. 이를 존재의 실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작도 중간도 끝도 부분도 전체도 모두 아름다움이란 것이다.¹¹⁾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연 안에서 살아가며 자연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성장, 발전해 나간다. 삶의 본질은 일차적으로 개체, 또는 종족의 보존과 성장이며 그것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상호 적응을 통하여 스스로를 갱신함으로써 지속되어 간다. 삶은 곧 행위의 연속이며 그러한 행위를 중심으로 경험이 형성되기 때문에 삶의 과정은 바로 계속적인 경험의 과정이다.

대학원 박사논문, 1994 P.3

10) 김향숙, 「미술감상 교육의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비평의 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P.29

11) 임정기, 이성도, 김황기,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P.27

단순한 활동은 경험이라고 볼 수 없고 활동이 그 결과 속으로 계속되어 들어갈 때, 그 때 비로소 막연한 사태의 흐름이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그 때, 비로소 학습이라는 것이 일어난다.(J.Dewey 저)¹²⁾

듀이(John Dewey)에 의하면 경험(체험)이란 바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충동과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으로서의 환경과 상호 작용이며 이러한 의미의 경험은 교육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들 가운데미를 궁극적으로 가치내용으로 하는 것이 미적 경험이다. 즉,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이란 이성적 경험이나 과학적 경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미적 대상과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험 즉 대상을 지각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말한다.

김춘일도 이와 같은 견해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미적 대상을 보고 어떤 형태를 지각한다는 것은 ‘나’라는 주관만의 작용도 아니요, ‘작품’이라는 대상만의 작용도 아니다. 대상의 형태가 가지는 ‘물리적 구조’와 나의 ‘정신적 과정’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독특하게 결정지어지는 하나의 ‘만남’의 과정인 것이다. 결코 우리의 기존의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직접적인 지각 경험에 의해서 나대로의 의미의 세계를 ‘발견’하고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다.”¹³⁾

미적 체험의 특징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적 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실제적이거나 실용적인 목적을 갖지 않으며 미적 체험이 제공하는 통찰력, 만족, 즐거움에 가치를 둔다. 삶에 있어 대부분의 경험들은 실용적 가치에 의해 자극되어지지만 음악이나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은 실용적 목적을 갖지 않는다. 미적 체험과 일상생활의 경험 간의 근본적인

12) 김춘일 역,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2, P.219

13) 김춘일, 『미술과 교육론』, 을지출판사, 1988, P.45

차이가 바로 이런 미적 체험의 비현실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현실적인 이득이 없는 것으로서 그 진가가 있다. 과일이 담긴 그릇을 보는 것이 미학적일 때에는 색채나 과일의 모양을 보고 심사숙고할 때이고 미학적이 아닐 때에는 배고픈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림이 상기시켜 줄 때이다. 미적 체험은 그 자체로서 끝이다. 이것은 오직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다.(Hoffer, Charles R 저)¹⁴⁾

둘째로 미적 체험은 지각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지각은 감각적 경험의 결과로써 어떤 대상이나 어떤 성질, 혹은 어떤 관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심상, 혹은 하나의 기억에 대한 구체적 인식(awareness)의 상태이다.(R. Arnheim 저)¹⁵⁾

미적 체험은 미적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미적 인식(aesthetic awareness)은 미술지각과 감상에 관련되어 있고 능동적인 지각의 과정이며 개인과 자극적이고 조화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과의 상호 작용이다.(Viktor Lowenfeld, Lambert Brittain)¹⁶⁾ 우리는 이러한 미적 체험 속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물을 보는 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각을 얻고 생의 즐거움을 느낀다.(R. Arnheim 저)¹⁷⁾

셋째로 미적 체험의 특징은 특별한 태도에 있다. 미적 체험은 흔히 대상이나 사건에 관한 체험자의 특별한 ‘태도’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 이런 태도만 있다면 우리는 사물을 특수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각별한 시각으로 관찰하고 처리할 수 있다.(Eaton, Marcia Muelder 저)¹⁸⁾

특별한 태도나 흥미를 갖는다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특성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제적·정치적·지적인 고려보다는

14) 안미자 역, 『음악교육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P.53

15)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1996 P.8

16)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P.303

17) 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1996 PP.8-11.

18) 유희전 역, 『미학의 핵심』, 동문선 문예신서, 1998, P.88

미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을 들을 때, 필요한 것에 대해 모호하고 일반적으로만 알기 쉽다. 외양이나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비용이나 사회적 결과, 진리에 대한 생각은 일단 제쳐두게 된다. 사람들은 예배를 보는 것이 종교적 경험 때문이 아니라 미적 경험을 갖기 위해서라고 흔히 말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작곡자의 종교적 신념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미사에 사용되는 특정한 천주교 성가를 미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믿는다. 무신론자들이 찬송가 가사를 노래가 아닌 ‘말’로만 한다면 당황하겠지만, “찬송가로 부르는 것은 아주 좋아 한다.”고 한다. 이 말은 바로 노래가 그들에게 지적이나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미적 활동임을 의미한다. 그들은 분명 평상시의 신념과 태도를 접어둔 때 미적 관심을 취하는 것이다.(Eaton, Marcia Muelder 저)¹⁹⁾

③ 미적 체험의 활동 형식

미적 체험 활동은 형식면에서 볼 때 미적 ‘창조활동(創造活動)’과 ‘향수활동(享受活動)’의 두 측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미적 창조활동은 능동적 생산적 측면이고 향수활동은 수동적 수용적(受容的) 측면을 뜻하며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미적 대상에 대한 미적 의식의 활동 형식에 있어서는 미적 체험의 본질적 구조상 원리적으로 창조적(創造的) 생산성과 소여적(所與的) 수용성, 이 두 계기의 융합작용에 의한 동일화적(同一化的) 활동으로 미적 체험이 성립된다.²⁰⁾

향수(enjoyment)란 뜻을 알아보면 보통 대상을 맛보고 즐긴다는 것을 뜻하며, 유희나 운동경기의 향락 또는 기호물에 대한 향락 등에 공통된 특질을 가진 말이다. 그러나 미적 대상에 미적 체험으로서의 미적 향수의 경우

19) 유희전 역, 전게서, 1998, PP.88-89.

20) 하재창, 『미학의 제문제』,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6 P.128

에는 미적 향수 체험이 단순하나 감각적 쾌락의 의미를 압축하는 향락이란 용서 대신에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미적 대상을 받아들여 이를 맛보고 즐긴다는 의미에서 ‘미적 향수’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²¹⁾

미적 대상에 대한 체험의 경우는 창조활동보다는 향수활동이 더 강조되지만, 미적 향수활동은 오로지 수용적인 기제만이 아니라 창조적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창조활동의 과정도 함께 작용한다. 이를 테면 예술가가 자신의 주관적 개성에 따라 어떤 소재를 파악하여 활동을 통하여 자기 작품에 독자적인 양식을 부여하면서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미적 대상에 대한 미적 향수체험을 함에 있어서 주어진 미적 현상을 자신의 개성적인 심미적 태도에 바탕을 둔 방식으로 파악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정신적인 창조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예술가의 제작활동이 외형의 창조활동뿐만 아니라 미적 대상을 수용하는 활동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말한다.²²⁾

3) 통합적인 것으로 확장되는 미적 체험

듀이(John Dewey)는 『경험으로서의 예술』(1934)이라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예술과 그 감상을 다른 양상의 경험과 분리시키는 것은 인간 주체의 본성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삶의 일반적인 과정과 미적 체험과의 지속성을 재확립시키는데 있다.

그에게 미적 체험은 통합성(unity) 속에서의 경험이고, 경험으로서 그 발달을 구속하거나 희미하게 하는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험이다. 지각하기 위해서는 관객은 그 자신 고유의 경험을 창조하여야 하며, 이 경험은 제작

21)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167

22) 이화식, 「미적 체험 영역의 분석과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PP.18-19

자가 경험한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관 전체와 대상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교류가 없다면, 그 대상은 지각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의 실용주의적 이론에 의하면, 이 경험은 완전한 경험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완전한 경험이란 경험이 총체적으로 움직일 때, 또한 인간의 모든 영역, 즉 실용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그리고 지적인 영역이 상호 작용할 때를 의미한다.

듀이에게는 미적 체험이 다른 일반적인 경험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평범한 경험의 조건과 양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독특함을 제공하는 한 대상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 “하나의 경험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일반적인 지각 수준 위의 상태로 고양되었을 때, 그리고 그 자신의 고유한 것을 제시할 때, 한 대상은 특별한 그리고 원칙적으로 미적이며, 미적 지각의 특별한 감흥을 제공한다.”²³⁾

듀이는 미적 관심의 이론 속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론, 즉 심리적인 거리감, 혹은 초연의 의미로서의 무관심성을 거부한다. : “무관심성, 초연함, 심리적인 거리감은 순수한 욕구나 원초적인 충동에 적용되는 모든 사고를 표현하나, 예술적으로 조직된 경험과 같은 것에게는 적절하지 않다”²⁴⁾. 따라서 듀이는 무관심성의 이론에 의한 구속에 반대하여 미적 체험의 또 다른 이론을 제안하다. 즉 그는 주관적인 활동의 자율권 속에서 실용적이고,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모든 태도를 배제한 채로 작품 지각의 순간과 기쁨으로 한정된 무관심성 이론에 반박하는 것이다.

듀이에게는 미적 체험이 예민한 주목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의 축소된 관조(contemplation)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예술과 그 감상을 그들만의 분리된 영역에 위치시켜 경험의 다른 양상들과 분리시키는 이론은 인간 주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특수한 외부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23) John Dewey, 번역 이재언,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P.63

24) John Dewey, 상계서, 2003 ,P.258

다. 관조는 탐색과 사고의 요소가 지각의 과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속물로 종속된 지각의 한 영상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욕구나 사고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경험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래서 특별히 지적이거나 실용적인 경험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예술 작품에 대한 미적 체험의 기능을 인간 경험이 서로 다른 영역의 총체로 통합되는 것으로 보는 듀이의 이론은 예술을 본다는 것을 지식의 한 양상, 혹은 한 형태로 보게 만든다. 사실 이와 같은 시각은 서로 다른 이론을 펼치는 많은 다른 미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듀이를 구별 짓게 하는 것은 그가 미적 체험을 인간 경험의 총체적인 경험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지식의 한 양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예술 작품의 활동, 그리고 지각의 기쁨 속에서는 지식이 변형된다. 그래서 지식 보다 상위의 것이 되고, 이는 그 자체로서 고려될 수 있는 한 경험으로 형성되기 위해 비지적인 다른 요소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혼돈 된 모습은 미적 체험에서 더 명료히 이해되게 된다. 이것은 사유나 과학이 사물을 한 개념적인 형태로 요약하여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것과는 달리, 미적 체험은 그것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며, 긴밀하고, 강도 높고 열정적인 한 경험의 내용으로 의미를 소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²⁵⁾. 여기서 듀이의 지식에 대한 타협적인 개념을 발견하게 된다.²⁶⁾

25) John Dewey, 전제서, 2003, P.258

26) 이은적, 「미적 태도, 미적 체험의 개념 이해와 미술교육적 논의」, 교육 제21권, 2003, PP.199-200.

4) 미적 체험의 개념적인 흐름

① 고대

미적 체험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미적 체험에 관한 진술은 피타고라스(Pitagoras)가 최초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원전에 의하면 “인생은 체육경기와도 같다. 어떤 이는 레슬러로, 어떤 이는 장사꾼으로 등장하지만 최선은 구경꾼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즉 그는 구경꾼이란 말로써 미적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을 의미했으며 그리하여 사실상 미적 태도를 구경꾼의 태도와 동일시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말로 하여 미적 체험의 역사를 출발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Wladyslaw Tatarkiewicz 저).²⁷⁾

이러한 미적 체험의 최초의 견해를 완성하고 성숙시킨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였다. 그는 ‘미적 체험’이라는 명칭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저서인 ‘니코마스 윤리학(The Nicomachean Ethics)’에 미적 체험을 향수자의 체험과 동일시하는 최초의 견해를 표명하는바, 그는 미적 체험을 강렬한 쾌의 체험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체험은 감각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Wladyslaw Tatarkiewicz 저).²⁸⁾

플라톤(Platon)의 미학은 미의 이론에 관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미적 체험의 이론도 제기했다. 플라톤은 진정한 미를 이데아에서 찾았다. 우리의 눈과 귀는 대상의 미를 지각할 수 있지만 이데아의 미는 지각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플라톤은 이데아의 미를 지각하는 영혼의 특별한 능력을 상정해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미적 태도를 기술한 반면 플라톤은 미적 정서

27) 이용대 역, 『여석 가지 개념의 역사-미학에세이』, 이론과 실천, 1994 P.352,P.353 재인용

28) 이용대 역, 전게서, 1994 , P.353,P.354 재인용

를 체험하는데 필수적인 정신능력을 기술했다. 그러나 그는 미적 체험의 전제인 예술작품에 대한 고려는 미역하였던 점과 미적 체험에서 필히 선행되어야 할 미적 체험의 감각적인 국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이 취약점으로 노출된다 (Gorge Dicki 저).²⁹⁾

즉 피타고라스는 미적 체험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정의한 사람이다. 그는 미적 체험과 태도를 ‘관람자’의 체험과 관람자의 태도를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적 체험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데아론을 주장한 그의 스승인 플라톤은 미적 체험에 대하여 그의 철학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미의 완성태는 이데아에 있으면 인간은 이데아의 미를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정신능력만 있다고 하였다.

② 중세 및 르네상스

중세에는 고대에 비해 미적 체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별반 새로운 사상은 제기되지 않았다. 고대적 관점과 개념, 이론들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르네상스 이론가들은 미적 체험을 위해서는 대상의 미뿐만 아니라 주제의 특별한 정신적 능력, 즉 적절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견지했다. 그 태도는 르네상스시대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 즉 능동적인 것 또는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전자의 개념에 의하면 대상의 미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정신속에 미의 관념이 있어야 했다. “미는 우리에게 내재하는 미의 관념과 조응할 때 호소력을 갖는다.”고 하여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반면에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는 미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지 ‘영혼의 복종’뿐이라고 하여 미의 감상을 위해서는 체험을 규제하

29) 오병남 역, 『미학입문』, 서광사, 1986, P.16 재인용

는 능동적 관념보다는 미에의 수동적인 복종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Wladyslaw Tatarkiewicz 저).³⁰⁾

양자의 개념은 체험을 규제하는 관념의 틀 속에서 미적 체험을 설명하는 플라톤의 개념과 미적 대상의 작용에 오로지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이 나란히 공존한 결과이다(Wladyslaw Tatarkiewicz 저).³¹⁾

지금까지의 시대를 개괄해 본다면 고대, 중세, 르네상스는 상당 정도 미적 체험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그 탐구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주로 제기된 질문은 이렇다. 그 같은 정서의 체험은 무엇의 덕택인가? 그것은 어떤 능력과 태도를 요하는가? 와 같은 질문으로 정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별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 당시의 미적 체험은 곧 미의 체험인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미적 체험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미적 체험의 삶의 목적이며 의미인 미의 지각에 기여한다는 점은 명백해 보였다. “삶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미를 바라보기 위해 그런 것.” 이라는 플라톤의 견해가 공유되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 문제가 등장한 것은 마침내 후기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이다. 17세기 프랑스 저작가들의 글 속에서 그것에 관한 언급이 나오며 18세기 초에는 그 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이론이 창출되었다. 그것은 1719년 뒤보(The Abbe Jean Dubos)가 발표한 것이다. 그의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만을 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었다. 그 욕망 가운데 하나는 정신을 몰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는 권태롭고 불행하다는 것이다. 권태를 벗어나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중 어떤 것은 어렵거나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위험도, 해도 없는 방식으로 똑같은 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는바 그것은 예술과 미적 체험을 통해서이다.

30) 이용대 역, 전게서, 1994, P.352, P.353 재인용

31) 이용대 역, 전게서, 1994 P.366

이는 미적 체험의 목적을 밝힌 최종의 이론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뒤보의 이론은 17세기의 전환점에서 제기되었다. 그 이후 곧 학문적 관심과 기호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변화로 인해 미적 체험의 분제는 전면에서 부각되었다(Wladyslaw Tatarkiewicz 저).³²⁾

즉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의 미에 대한 태도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수동적인 태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적극적인 개념이 나란히 나타났던 시기이다.

③ 18세기

18세기에 들어서자 미적 체험과 관련된 미학적인 물음은 새로운 형태로 제기 되었다. 18세기 초에는 미적 체험을 행하는 인간의 특정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 18세기의 그와 같은 일반적인 생각은 플라톤, 플로티누스(Plotinos)적인 전통의 재확립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으나, 18세기에는 그러한 전통을 뛰어넘어 오로지 미의 인식에만 봉사하는 특정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당대에 애용했던 한 가지 개념은 ‘취미’였다. 이 개념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예술가와 문인, 광범위한 지식층들이 훨씬 많이 사용했다. 취미는 미의 직관적 지각능력이라기 보다는 미를 추한 것에서 판별해내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 칸트(Kant, Immanuel)는 이를 ‘미적 공통감각’이라하여 만인이 좋아하는 것을 판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허친스(Francis Hutcheson, 미감은 미의 지각을 위한 수동적인 능력), 뒤보(The Abbe Jean Baptiste Dubos,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미의 능력은 제6감), 블레어(Hugh Blair, 내재적 미감), 제라르(Alexander Gerard, 일곱가지의 내감) 등을 통하여 표명되기도 한다.³³⁾

32) 이용대 역, 전게서, 1994, P.357, P358

이상과 같은 새로운 변화는 미는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지각하는 마음에 있다는 흄(David Hume)의 극단적인 미적 주관주의와 보조를 맞추었으며, 당시에 투영된 특정 미적 체험의 능력들은 당시의 용어대로 취미(미를 추로부터 판별하여 내는 능력, 미의 직관적 지각을 위한 능력)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가 함축하는 바는 바로 미적 체험상의 주관의 태도 변화라는 점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들은 미적 체험이 의식 일반에서 태도의 변화로 발생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미적 체험을 의식 일반에서 유리시켜 파악한 결과 인간의 유기적인 전체 내에서 미적 체험을 격리시키게 되었다. 예컨대 허친슨(Francis Hutcheson)은 미감과 도덕감을 구분하였다.

18세기 중엽의 독일에서는 파이프니츠 및 볼프 문화의 한 철학자였던 알렉산더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은 ‘이성적 인식’과 ‘감성적 인식’이라는 고대적 구별을 견지하면서 놀라운 새 해석을 부여하였다.

그는 미의 인식을 감성적 인식과 동일시하면서 미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그리스계 라틴어 명칭어로 ‘미적 인식(감성적 인식)’또는 줄여서 ‘미학(aesthetica)’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해서 근대 라틴어로부터 ‘미학(aesthetica)’이란 명사와 ‘미적(aesthtic)’이란 형용사가 근대어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하여 ‘미적 체험’은 적어도 2,000년 동안이나 논의되어 온 현상들을 늦게나마 설명하는 명칭이 된다(Wladyslaw Tatarkiewicz 저).³⁴⁾

33) 김종원, 「미적 체험의 본질 연구-현상학적 존재론을 통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4 P.8

34) 이용대 역, 전게서, 1994 ,PP.368-374.

④ 19세기

19세기에는 미적 경험에 대한 매우 단순한 이론이 나타났다. 이것은 칸트의 덕이 컸다. 1818년 간행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속에 나타난 쇼펜하우어(Schopenhauer, Authur)의 이론이었다. 그의 이론은 미적 경험이 단순히 관조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구경꾼의 입장을 취할 때 사물에 대한 통상적이고 실질적인 태도를 떠날 때, 사물의 근원과 목적에 대해 더 이상 사고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 미적 감각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심력(心力)을 대상을 보는 일에 집중시키고, 스스로 그 대상 속에 잠겨서, 자신의 의식을 자신이 보는 것 즉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개인성을 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를 억제하게 된다. 주관이 대상에 반영이 되는 것이며, 그의 의식 전체는 세계의 그림 같은 재현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심의(心意)의 상태, 대상에 대한 이런 수동적인 순종을 쇼펜하우어는 관조, 미감적 쾌락(aesthetisches Wohlgefallen), ‘미감적 태도(aesthetisches Betrachtungsweis)’라 불렀다

(Wladyslaw Tatarkiewicz 저).³⁵⁾

미적 체험에 대한 정의는 수세기 동안 피타고라스가 주목했던 ‘관람자’의 태도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론은 분명하게 공식화되지 못했고 쇼펜하우어에 의해서야 공식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자연적인 개념과 칸트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35) 이용대 역, 전게서, 1994, P.373

⑤ 20세기

19세기 초반의 그 위대한 철학적 세계들 속에서 미는 미학의 가장 주요한 개념이었으나, 오래 가지는 못했다. 19세기 후반에는 미적 체험이 계몽주의 시대보다 한층 더 완벽하게 미학을 지배했다. 미학은 경험과학 및 페히너의 저술들을 따라서 실험과학의 입장을 취하면서 거의 심리학의 한 분과가 되었다. 심리학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미학은 엄청나게 많은 정밀한 사실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19, 20세기의 미학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원했다. 그들은 이 자료들을 모아 하나의 일반적인 이론으로 수렴시키고자 한 것이다. 정밀한 자료들도 믿을 만 했으나 모든 이론이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이 있었으나 어떤 이론도 적절하지는 못했다(Wladyslaw Tatarkiewicz 저).³⁶⁾

여기에서는 가장 특징적이고 영향력이 컸던 이론들을 살펴보면 가장 단순하고도 널리 퍼져 있는 쾌의 이론과 인지 이론, 환영이론, 감정 이입 이론, 관조이론, 관조 이론에 따른 추론 이론(고립 이론, 심적 거리의 이론, 무관심성의 이론, 형태 심리학적 이론)등이 있다(Wladyslaw Tatarkiewicz 저).³⁷⁾

현대의 미적 체험의 개념의 특징은 다원적 개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적 체험은 수동적 성질의 경험과 적극적 성질의 경험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체험이 지적인 요인과 순수한 정서적인 요인이 모두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대 미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36) 이용대 역, 전계서, 1994, P.374

37) 이용대 역, 상계서, 1994, PP.373-383

5) 미술교육에서의 미적 체험의 관한 논의

미술교육은 미술의 본질과 교육의 본질로 만나면서 이루어진다. 미술의 본질은 미적 체험에 있는데 이는 체험의 주체인 자아가 체험의 대상인 객체(작품)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미적 체험을 통하여 대상이 가지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각성하는 일련의 직접적 체험의 과정이다.³⁸⁾

예술작품은 우리에게 미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각하는 사람의 미적 체험은 예술작품 정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의 등장으로 미술교육에서의 미적 체험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미적 체험이 미술교육의 본질이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미적 체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미술교육 자체가 체험적 교육이지만 우리는 ‘미적’이란 단어와 ‘체험’이란 단어에 주목하여 미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미술 교육적인 면에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미적 체험교육을 통하여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환을 갖도록 함으로써 미술에서 지향하는 미적 인간, 심미적 인간을 육성하여 미술을 향유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³⁹⁾

2. 미적 체험의 기능

1) 인간 정서의 회복을 위한 미적 체험

니루(A. S. Niru)는 1945년 쓴 『인간교육』 중에서 “오늘날 세계의 혼

38) 임정기·이성도, 『중등 미술과 교육학』, 교과교육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1996, PP.3-4.

39) 이화식, 「미적 체험 영역의 분석과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6 재인용

란의 일면을 본다면, 과학의 연구가 진보하고 있는 반면에 감정적 발달은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원인일 것이다.”라고 말하고⁴⁰⁾ 있는데 이 감정적 발달은 무엇으로 발달시킬 수가 있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의 실마리를 미술교과 중에서도 미적 체험에서 찾을 수가 있다.

미적 체험 활동에 수반되는 인간의 다양한 정서, 즉 느낌과 감정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 미적 체험은 이해, 제작, 감상을 통하여 미의식을 향상시키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 이것은 생활 속에 아름다움을 실천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기쁨을 얻고 이성과 감정의 조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움 속에서 자아발견과 자아실현을 가능케 한다. 미술 교육은 인간과 세계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한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 또한 가장 귀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특히 자연은 이를 그대로 스스로 그리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최상의 작품으로 인식하게 한다. 여기에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케 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 관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상의 관계, 서로가 존엄한 관계- 그 관계 속의 장중한 인간 하나하나의 모습, 평화롭고 이상적인 관계- 로 승화시키고 노래하게 한다. 이것은 미적 체험으로 얻을 수 있는 높은 각성으로 인간의 존재나 세계와의 관계를 체득케 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직접적이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을 의미한다.⁴¹⁾

미적 체험을 통해 인간은 기본적인 삶인 정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하고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인간 스스로의 존재성을 인식시키며 인간적인 모습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존재성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란 삶과 죽음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다. 삶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40) 임정기·이성도, 전계서, 1996, PP.10-11. 재인용

41) 임정기·이성도, 상계서, 1996, P.11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존재성을 상실하며 인간 스스로 삶의 행복을 모르게 된다. 즉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정서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미적 체험의 독특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표현과 감상의 모태로서의 미적 체험

미적 체험은 모든 체험의 형태, 즉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위를 하는 것들의 근원적인 지각이나 감각 작용이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감각으로 상상에 의해 대상을 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이미지를 산출할 수 있는 표현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미적 교육은 예술가나 비평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며, 볼 줄 아는 미적 통찰력과 표현력을 길러주어 장래의 삶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⁴²⁾

감상 활동 역시 미적 체험에 의해 더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다. 감상은 작품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이상이며 그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김춘일은 감상이 인지적인 성격과 감상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미적 대상을 감상한다는 것은 대상의 미적 가치를 감상적으로 느끼고 이와 함께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미술 감상이란 감각과 지각을 통해 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는 내면화의 과정이라고 정의하는데, ‘내면화의 과정’이란 감상자의 인격과 상호 작용하는 심리적, 정신적인 활동으로 계속 반복적인 지각으로 이루어짐을 뜻한다.⁴³⁾

즉, 미적 체험 활동을 통해 미술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체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에 효과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다. 이

42)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1994, P.400

43) 김지호, 『미적 체험과 감상 교육』, 제18회 한국미술교육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자 원고, 한국미술교육학회, 2002, PP.22-35.

렇게 미적 체험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이에 기초한 표현, 감상 활동의 경험이 미적 체험으로 쌓여지면서 그 체험의 폭 또한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⁴⁴⁾

우리 스스로가 표현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아가 주체성을 들어내는 것이다. 하나의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 무의식속에 체험되어진 것을 통해 스스로가 생각하고 습득되어진 것을 표현하려한다. 스스로가 제대로 된 표현을 할 수 있고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적 체험이 꼭 수반 되어야한다.

3) 미적 안목 성장으로 생활 미술인 육성

우리는 주변의 자연과 생활환경 속에서 수시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고 있으며 미적 체험 여하에 따라 생활 속에서 쾌, 불쾌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생활을 밝고 명랑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유하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생활은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와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뿌리로서의 전통과 민족 문화, 나아가 세계 문화를 바르게 바라 볼 수 있는 안목까지 미적 체험의 범위를 넓혀서 미술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영향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쓰이는지, 나아가 미술을 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생각과 의지를 가질 수 있다.⁴⁵⁾

‘미적 안목’이란 말은 미적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환경을 미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말한다. 미적 안목의 육

44)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015호, 1998, 별책13, p.186

45) 박소영 외,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13, 1997, P.101

성은 자아 표현을 통해서, 시지각의 육성을 통해서, 우뇌의 계발을 통해서, 미술로 자유로움 속에서 질서를 추구하고 개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면서 즐거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이해하면서,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서히 육성된다.⁴⁶⁾ 그리고 미적 안목은 미술 표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미술을 이해하는 데에, 미술을 감상하는 데에, 미술을 비평하는 데에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도 적용되는 것이다.⁴⁷⁾

미술 표현은 보는 것에 의한 시각적인 질서화를 통해 조화를 추구하며, 미술 표현의 전 과정과 미술 이해, 감상, 비평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작용하는 요소는 바로 ‘시각화’이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보는 일은 미술의 기본적 출발점이 되며, 이렇게 보고 파악하는 일, 봄으로써 인식하는 일의 총체를 시지각 이라고 한다. 미술에서의 시지각은 일상적 시지각과는 달리 보이는 사물에 감정적·정서적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시지각은 지각 표상에 도달하는 동시에 개념의 정보망을 동원함으로써 시지각이 접수한 형태의 크기, 비례, 형상, 색채 같은 요소들을 판단, 추측, 논리, 결론에 의해 어떤 개념, 즉 미의식을 형성시킨다. 이런 미의식이 미감이며 넓게는 미적 안목이 된다. 미적 안목은 미술을 감상하는 데에, 미술을 비평하는 데에는 물론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도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는 잠 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시각적 환경 속에 살아가며 눈으로 수많은 대상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고 있다. 이러한 삶에서,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시각적 현상 속에서 의미 있는 미적 대상을 발견하는 일로부터 미술적인 것을 선택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적 안목이 요구되는 것이다.⁴⁸⁾

46) 이재선, 「미적 체험 교육의 현황과 개선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PP.21-22.

47)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1994, P.45

48) 이규선 외, 전게서, 1994, PP.44-45.

이렇게 삶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 주의 깊게 지각하고 미적으로 향수하는 체험이 부딪치고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것은 생활 미술인이 길러지는 일이며, 이것이 미술 교육 중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방을 꾸미는데 미술을 활용하고 자신을 꾸미는 것에서도 미적 안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전시장이나 건물에 있는 미술 작품을 나름대로 감상하고, 주변의 환경을 미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또한 자신의 삶에 미술을 끌어들이어 스스로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은 미적 체험 교육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⁴⁹⁾

4) 앎의 방식으로 가치

모든 교육은 ‘앎(knowing)’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미술은 역시 미적 체험, 즉 지각하고 표현하는 직접적 체험으로서의 앎에 교육적 기대가 주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앎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추상 즉, 개념이나 상징과 같은 매개에 의지하게 되는 앎으로 논리적 증명이 가능한 명제적 앎(propositional knowing)이고, 다른 하나는 체험적 앎(tacit knowing) 즉,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은 앎이다.⁵⁰⁾ 이 앎은 묵시적인 앎이고 자연에 직접 부딪쳐서 얻은 체험적인 앎이다. 체험적인 앎은 조작적 논증을 요하지 않는다. ‘예술’이 굳이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부과되는 이유는 지각하고 체험하는 미적 체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자연, 사회, 인간, 사물들에 대해 각기 그 고유한 특질을 발견하고 그것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파악, 표현하는 지성적 과업이기 때문이다.⁵¹⁾ ‘존재 의미의 발굴’

49) 이화식, 「미적 체험 영역의 분석과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29 재인용

50) R.A Smith, *Aesthetics and Problems of Education*, Urbana : Unit.of Illinois Press, 1971 ; 김춘일, 『미술과 교육론』, 을지출판사, 1988, P.18 재인용

에 미적 체험의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적 체험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는 앎을 우리는 ‘미적 앎(aesthetics knowing)’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⁵²⁾ 이러한 ‘미적 앎’은 미적 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미적 앎’은 미적 체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터득되어지는데 각각의 사물이 가지는 질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사물(존재)들은 아름다운 존재로서, 모습이나 존재 방식은 각각 달리하여도 그 내부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며 그 가치는 각각의 고유성을 갖게 된다. 미술교육은 이러한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미적 관조), 즐기고(미적 향수), 또 새롭게 표현하는 (예술의 창조)과정을 통해 미적 체험을 심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나아가 개체가 모여 사는 이 세계 즉, 아름다운 존재가 모여 있는 이 세계를 아름답게 나가고 새로움을 더해 나가게 하는 것이 미술교육이고 그 근본에는 미적 체험이 있다.⁵³⁾

미적 앎은 고유한 것이고 어떠한 상징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명제적인 앎, 경험적인 앎 두 가지 모두 습득하기 위해 체험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미적 앎 또한 스스로가 직접 체험을 해야만 자신이 습득한 결과물로서 제시될 수 있다.

51) 김춘일, 『미술과 교육론』, 을지출판사, 1988, P.62

52) M. Ross, *The Art : A Way of Knowing*, Oxford : Pergamon Press, 1883, P.19-P.41 ; 김춘일, 『미술과 교육론』, 을지출판사, 1988, P.62 재인용

53) 임정기, 『미술과 교수·학습 이론의 발전과 방향』,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교수·학습 이론과 실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1, P.23

III. 제7차 교육과정의 미적 체험 영역 분석

1.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 분석

1) 제 7차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성격 및 내용

미술은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 조형 언어를 통하여 창조, 발전시켜 나아가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또,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미술교육은 심미적인 감상력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학생들에게 미술을 이해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 빠른 사회의 변화와 정보의 증가로 인하여 시각적 대상들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여기에 국가적 요구와 교육 과정 연구의 발전 등이 결부되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교육 과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교육 개혁 위원회(1995년 대통령 자문 기구로 발족)에서 제시한 교육 개혁 방안에 따르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학습, 수준별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의 교육 비전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제 7차 교육 과정 총론이 개정됨으로써 미술과 교육 과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미술 교육에서는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교육 이념을 추구하면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으로서의 미술 교육과, 능력에 따른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선택 중심 교육으로서의 미술 교육으로 분리하여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될 21세기에 알맞은 주도적이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육성하려고 하기에 목표면에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하고, 내용면에서는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하여, 운영면에서는 학생의 능력·적성·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제도면에서는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육 과정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미술 교과에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미술 교과의 성격을 더욱 강조하고, 내용 구성에서도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을 중심으로 지속성, 계열성, 통합적인 성격을 확대하여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미술의 생활화,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 확립 및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심미적 가치관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이를 강조하였다. 전통에 대한 이해와 기초를 두고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 기초 능력을 토대로 개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직업적 과업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 확실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제 6차 교육 과정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 체제를 세우고, 미술과 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인적 성장의 토대위에 개성을 지향하는 인간, 전통에 대한 넓은 이해의 폭을 기초로 하여 민주적 공동체에 헌신하는 인간,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직업적 과업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구체적인 미술과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 제7차 교육 과정의 기본 정신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방향으로 미술과의 특성을 살리는 가운데 반영하도록 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을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보고 미술과 교육 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다. 제 6차 교육 과정 개정의 중점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교과 성격을 더욱 강조하도록 한다.

라.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을 중심으로 정선하여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도록 한다.

마. 미술과 학습 내용에서 필수 학습 요소 및 활동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적인 성격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생활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자의 관심, 흥미, 필요, 요구를 반영하며, 나아가 미술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 미술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한다.

아. 미적 감수성을 높이고 탐미적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감상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자. 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다양화, 자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및 심의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차.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미술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가 개별 학생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가 되도록 한다.⁵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교육은 미술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미술 교과의 목적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미적 체험’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연과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탐색, 탐구, 이해, 판단 등의 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이 영역은 학습자의 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관계를 인식하는 사고와 비판적인 안목을 형성하는 판단 과정을

54) 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 교육과학기술부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둘째, 동기 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 주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 활동과 능동적인 표현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하고, 창의적이며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도록 한다. 또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 7차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적 체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표-1>미술과 영역 고등학교 목표

고등학교 목표
(1) 생활 속에서 미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한다.
(2) 표현 활동의 탐색, 확장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한다.
(3) 미술 작품을 판단하고 미술 문화에 참여한다.

<표-1>의 미술과 영역 고등학교 목표를 살펴보면 7차 교육개정안에서의 미적 체험 영역이 확장되어졌다. 생활주변에서 미적 체험영역을 찾고, 표현활동과 감

상영역의 연계성을 강조한목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 학년군별 내용

<표-2> 고등학교 미술과 영역 내용체계

영역	고등학교
	10학년
미적 체험	(가) 자연 환경 자연 환경과 조형 의식의 관계를 이해한다. ① 자연 환경에 따른 조형 의식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기 ②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기
	(나) 시각 문화 환경 시각 문화 환경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판단한다. ① 시각 문화 환경이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기 ② 시각 문화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미술 관련 직업에 관하여 토론하기

학년 군별 수준에서 미술과의 내용을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구성해볼 때, 고등학교(10학년)의 미적 체험영역 <표-2>와 같이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도록 한다는 미적 가치의 발견을 이야기 하고 있다.

3) 미적 체험 영역별 지도

목표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의 방향만큼 영역별 지도 시 유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통하여 미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표현’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셋째,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미적 체험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55)

4) 교과서의 종류와 특징

교과서의 개발 집필진으로는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 교원, 현역 작가, 연구관 연구원, 미술교과 교육전문가 등 미술, 미술 교육에서 다양하게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연구 집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 저자들은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영역의 집필진으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8개 교과서중 6개 교과서)이 바람직하다.

미적 체험이라는 부분은 미술 이해 분야이고 DBAE의 구분으로 파악한다면 미학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표-3>56)과 같이 집필진을 폭 넓게 구성하고 미학이나 미술 이론 전공자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5) 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56) 김민경, 「미술 교과서의 미적 체험영역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P.20

<표-3> 교과서의 종류

(단위: 명)

교과서명	교과서	교학 연구사	금성 출판사	대한 교과서	두산	삶과 꿈	시공사	천재 교육
저자	<u>노영자</u> <u>이인숙</u>	<u>김정희</u> <u>서형신</u> <u>정연희</u>	<u>한운성</u> <u>김용식</u> <u>송희</u>	<u>이현표</u> <u>박병천</u> <u>유금자</u> <u>강신술</u> <u>안병철</u> <u>김용주</u> <u>장경아</u>	<u>고승혜</u> <u>이완숙</u> <u>장선화</u> <u>고승근</u> <u>류제순</u>	<u>이윤구</u>	<u>홍선표</u> <u>오인석</u> <u>조익환</u> <u>강재희</u> <u>양민영</u>	<u>홍명섭</u> <u>도시성</u> <u>조미연</u>
대학교원	·	1	2	1	1	·	1	2
전문직	·	·	·	1	·	·	·	·
중등교원	2	2	1	6	4	1	4	1
총인원	2	3	3	7	5	1	5	3

* 밑줄 표시는 미적 체험 영역의 집필자를 뜻하고 ·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뜻한다.

2. 8종 교과서 미적 체험영역 분석

1) 교학사

<표-4> 교학사 단위별 내용

구분 양식	교육 과정 상의 내용영역	학습내용	교 과 서 쪽 수	학 생 의 작 품	작 가 작 품	기 타 계	한국의 전통미술					자 연 및 자 연 물
							외 국 작 품	건 축	회 화	조 소	디 자 인 · 공 예	
자연미와	미적체험	자연미	1		2	2						2
조형미	미적체험	자연미와 조형미	1	1	8	9	2	1		1	2	4
미술과 문화	미적체험	다른나라의 미술	1			4	4					
	미적체험	우리나라의 미술	1			5	5	2			2	4
생활 속의 미술	미적체험	생활 속의 미술	2	1	3	4	8	1				
선의	미적체험	우리나라 전통미술	1		3	3		1	2	3		
아름다움	미적체험		1	4	4	4						

교학사의 미술교과서는 <표-4>⁵⁷⁾의 내용과 같이 미적 체험이 4단원으로 구성되어 되어 8쪽으로 제시되어있다.

미적 체험 영역은 자연미와 조형미, 미술과 문화, 생활 속의 미술, 선의 아름다움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습 내용에 있어 자연과 조형물의 관찰을 통해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 하도록 도판을 게재하였으며 특히 생활이나 예술 작품에 응용되어진 자연미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조형 요소와 원리의 활용에

57) 김민경, 전계서, 2007, P.22

관하여 학생 스스로 탐구하여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미와 조형미’ 단원은 자연과 조형에 나타난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미가 생활에 적절하게 활용된 예가 무엇인지 토론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미술로 자리 잡고 있는 양식 들을 보여주며 주변 환경에서 체험 할 수 있는 작품을 게재해 놓았다. 미술과 문화는 세계 속의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 미술을 학습하며 이해하고 공통적인 모습과 차이점을 알아 갈수 있도록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 속의 미술은 미술 속에서 미술의 활용성을 찾아보고 토론 가능한 전통 미술 문화 관련 작품과 현대 미술 문화 관련 작품을 제시, 서술하고 있다.

교학사의 교과서는 학습내용에 있어 타 교과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선(線)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원이 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미술과 서양의 아르누보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선의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서양의 미술품을 함께 제시하며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제시해 놓았다. 여기서 ‘아르누보(Art Nouveau)⁵⁸⁾ 양식은 8종 교과서중 교학사가 삶과 꿈 교과서와 함께 다루고 있는데 한 페이지 전체에 양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교학사이다.

58) 아르누보(Art Nouveau)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장식적인 양식의 일종으로, 우아한 곡선과 곡면의 사용이 특징적이다. 건축이나 공예 또는 포스터 디자인을 통해 과거의 전통 양식을 거부하고, 식물 형태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선이나 형에 의한 유동적인 곡선을 강조하여 장식과 평면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추구하였다.

아르누보는 전 유럽에 파급되어 영국에서 모던 스타일(Modern Style), 이탈리아에서는 스틸 리베르티(Stilre Liberti),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Jugend Stile), 오스트리아에서는 세세션(Secession)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2) 교학연구사

<표-5> 교학연구사 단위별 내용

구분 양식	교육과정 상의 내용영역	학습내용	한국의 전통미술											
			교 과 서 쪽 수	학 생 의 작 품	작 가 기 타	계	외 국 작 품	건 축	회 화	조 소	디 자 인 · 공 예	기 타	계	자 연 및 자 연 물
자연으로 부터	미적 체험 감상	자연미	2		4	4	3					2	2	8
삶의 중요로움		미술의 가치	2		5	5								2
예술가의 눈으로		예술가의 눈으로	2		5	5	4		2				2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술	감상 표현 미적체험	디자인의 세계	2		4	7	11	11						
		시가 전달 디자인	2	1	7	7	15							
		캐릭터 디자인	1	1		3	4							
		민화,애니메이션	1	2	1	1	4	1						
		광고디자인	1	2		2	4							
		제품디자인	1	1		5	6	3						
		환경디자인	2	3	1	11	15							
의상디자인	2	5	3		8	2				2	2			
전통의 숨결	미적체험 표현 감상	도자공예	1		1	2					3	3		
		목칠, 금속공예	1		2	2					4	4		
		섬유공예	1	5										
새로운 모색	미적체험 표현 감상	폐품을 이용한 공예	1			5					2	2		
		새로운 모색	1		8	8	5							
		회화와 조소의 만남	1		3	3	3							
		테크놀러지의 만남	2		10	10	6							
미술과 문화	미적체험 표현 감상	대지와와의 만남	2		3	2	5	2				2	2	
		미술 감상	1			1	1							
		미술과 관련된 직업	1			1	1							
		우리나라 미술	4		11	11		11	8	5	7		31	
		동양 미술	2		3	8	11	11						
서양 미술	6		16	16										

교학연구사의 미술교과서는 <표-5>⁵⁹⁾의 내용과 같이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영역이 각 단원에서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구성된 점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나름대로 자연, 인간 그리고 미술, 미와 창조, 시간, 공간 그리고 미술이라는 영역을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자연, 인간 그리고 미술 영역은 자연으로부터, 삶의 풍요로움, 예술가의 눈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연으로부터’단원은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여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통해 공간 활용을 탐색하고, 생활 속에서 미술의 역할을 이해하고 ‘예술가의 눈’으로는 미술 작품은 작가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작가가 살던 시대성과 민족성을 반영함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미의 창조 영역은 눈길의 교차, 동양의 마음, 아름다운 일상, 꿈과 환영, 공간과의 대화, 점·선·면, 인간을 위한 디자인, 전통의 숨결, 서예로 구성하고 있다.

‘눈길의 교차’ 단원은 관찰 표현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대상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창의 적으로 표현하고 ‘동양의 마음’은 동양화의 특성과 정신을 이해하며, 표현과 감상에 활용하였으며 ‘아름다운 일상’은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그림을 감상하고 그 주제를 이해하며 ‘꿈과 환영’은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는 작품을 감상하고 상상의 세계를 독창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미적 체험 영역이 확연히 분리가 되어있지 않고 만큼 시각적인 분야는 모두 첨가 시켜놓은 만큼 표현활동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의 작품들이 게재되어 있다.

‘공간의 대화’단원은 조소 작품의 아름다운 특성과 원리를 알고 표현과 감

59) 김민경, 전계서, 2007, P.24

상에 활용하고 점·선·면은 추상 미술의 특성 및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표현 및 감상에 적용하고,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디자인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의 분야를 알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의 기능에 대해 알고 우리 생활과 디자인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전통의 숨결’단원은 모든 교과서에서 재료에 따라 분류되는 도자 공예, 목칠 공예, 섬유 공예, 금속 공예 등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교학연구사에서 다루고 있는 폐품을 이용한 공예는 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려진 물건들을 이용하여 재창조해내는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 의식과 재활용의 실천적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의의를 지닌 내용이다.

‘새로운 모색’단원은 타 교과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만 , 교학연구사는 각 개념들에 대하여 도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용어에 대한 개념까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학생들의 이해를 한층 돕고 있다.

‘미술과 문화’단원은 우리들의 문화의 가치에 대해 알고자 미술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도록 학습한다.

교과서 도판에 있어 자연미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밤하늘의 별빛이나 긴대말 불 버섯의 포자 방출을 보여주는 도판은 단순한 자연물을 보여주는 도판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자연현상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도 자연을 관찰 할 수 있다는 미적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천연 염색 재료의 표현 중 섬유 공예와 연관시켜 제시하거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대지와와 만남이라는 소단원으로 대지 미술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미적 체험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표현활동과 감상과 연관되어 학습되도록 제시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금성출판사

<표-6> 금성출판사 단위별 내용

구분 양식	교육 과정 상의 내용 영역	학습내용	교 과 서 쪽 수	학 생 의 작 품	작 가 기 타 작 품	계	한국의 전통미술					자 연 및 자 연 물
							외 국 작 품	건 축	회 화	조 소 공 예	인 기 타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가치	미적체험	자연속의 조형요소	4	8	8	1						
미술과 문화	미적체험	미술의 역할과 기능	2	1	2	3	1					
	미적체험	전통미와 현대미	1	2	1	3		1	1	2		

금성출판사의 미술 교과서는 <표-6>⁶⁰⁾의 내용과 같이 미적 체험영역은 2단원 7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적 체험 영역은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 미술과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내용에 있어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미적 체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단원은 자연과 생활의 주변 조형 요소와 원리의 발견 등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교과서 도판에 있어 학습 내용과는 달리 자연이나 자연미를 보여주는 자연물, 자연 현상에 관한 도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가 학습 자료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비취 본다면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는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미와 연계되는 작품들을 연계하거나 학습내용에 알맞게 도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교과

60) 김민경, 전계서, 2007, P.27

서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4) 대한교과서(주)

<표-7>대한 교과서 단원별 내용

구분 양식	교육 과정 상의 내용 영역	학습내용	교 과 서 쪽 수	학 생 의 작 품	작 가 의 작 품	기 타	계	한국의 전통미술						자 연 및 자 연 물	
								외 국 작 품	건 축 화	조 소	인 공 예	기 타	계		
아름다움을 찾아서	미적체험	조형 요소와 원리	2				12	12					1	1	9
		조형 요소와 원리의 활용	2	4	3	7	6						1	1	1
미술과 문화	미적체험	미술 문화의 특성	2			9	9	1	1				2	1	4

대한교과서는 <표-7>⁶¹⁾의 내용과 같이 미적 체험 영역이 2개 단원 6쪽으로 구성되었다. 학습내용에 있어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에 관하여 다루는 단원은 ‘아름다움을 찾아서’이며 주로 자연과 조형물의 조형 요소와 원리 및 이의 활용방법, 미적 가치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아름다움을 찾아서’단원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도판을 구성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단원은 자연과 조형물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 등을 알아보는 단원으로, 타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물과 조형물의 도판을 게재하고 있다. 식물 도판에 소나무, 연꽃, 고춧잎과 열매, 해바라기 동물 도판 새 떼, 기타 도판구름, 산의 능선, 거미줄 등이 있으나 대한 교과서 역시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도판 보다는 조형 요소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자연물을 나타내는 도판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

61) 김민경, 전계서, 2007, P.28

은 ‘아름다움을 찾아서’단원에서는 타 교과서와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판을 구성한 점이다. 도판을 게재하는데 있어 몬드리안의 ‘적·황·청의 콤포지션’과 자연물 도판을 결합하여 작품의 사각형 안에 여러 도판을 배열하였다. 이러한 점은 자연미에 대한 학습내용과 관련된 도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몬드리안 작품을 함께 제시하여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를 추구하는 독특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과 문화’ 다양한 나라의 문화 유적을 도판에 실어놓아 문화의 미적 가치를 비교하고 여러 나라의 미술 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놓았다.

5) 두산

<표-8>두산 단원별 내용

구분 양식	교육 과정 상의 내용 영역	학습내용	한국의 전통미술										자연 및 자연 물		
			교 과 서 쪽 수	학 생 의 작 품	작 가 작 품	기 타	계	외 국 작 품	건 축	회 화	조 소	디 자 인 · 공 예		기 타	계
미술과 생활	미적 체험 감상	자연미와 조형미	2	4	4	4	2								3
		미술과 문화	2			6	6	3	2			1		3	
		미술과 아름다운 삶	2	1		5	7	1	1					1	
조형의 이해	감상 표현	조형의 요소	1		4		4	1							
		조형의 원리	1	1	2		3	1		1			1	2	
		색의 원리	2	8	1	2	11	1				1		1	
디자인의 세계	미적 체험	디자인의 이해	1			2	2	2							
		시가디자인	3	3	2		5	3					1	1	1
		환경디자인	2		2		2	1	2						1
		제품디자인	2	4	2	2	8	2							
공예의 세계	미적 체험 표현	공예의 이해	1		1	2	3	1				1		1	
		전통공예	2			6	6					4		4	
		현대공예	1		3	1	4	3							
		환경도에	2		1	2	3	2							

두산의 교과서의 각 단원은 <표-8>⁶²⁾의 내용과 같이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 영역이 각 단원의 통합·구성되어 유기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의 타 교과서와 같은 순서로 미적 체험 영역은 ‘생활과 미술’의 한 단원 정도다. 학습 내용에 있어 자연

62) 김민경, 전계서, 2007, P.29

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미술의 문화적 역할과 미술 문화의 특성을 비교하고 조형의 이해는 조형의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색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하고 개성을 살린 표현은 주제에 따른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재료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전통의 맥을 살려서는 전통의 회화와 서예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며 그 표현 방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고 게재되어 있다.

도판에 있어 꽃과 잠자리 기타 도판 동강의 물줄기, 갈라파고스 해안 등 단순한 자연물을 나타내는 도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운 미적 요소를 이용한 예술품을 보여주고 있으나 도판에 있어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자연물의 도판과 예술작품과의 연관성이 적어 이들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또 전통 미술 문화의 작품만을 게재하면서 현대 문화에 있어서는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미적 가치를 비교해 보는 내용을 탐구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관련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제시하여 교과서의 도판 이외에 더 많은 자료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유도하는 참신함을 가지고 있다.

6) 삶과 꿈

<표-9> 삶과 꿈 단원별 내용

구분 양식	교육 과정 상의 내용 영역	학습내용	교 과 서 쪽 수	학 생 의 작 품	작 가 작 품	기 타 계	한국의 전통미술						자 연 및 자 연 물	
							외 국 작 품	건 축	회 화	조 소	인 · 공 예	기 타 계		
미적체험	미적 체험	미적 체험의 의미	2	2	2	4	1				2	1	3	5
환경과 미의식	미적 체험	환경과 미의식의 차이	2				3		1	1	1		3	5
미술과 문화	미적 체험	미술과 문화와의 관계	4		3	3	15	2	3		4	1	10	
미술과 생활	미적 체험	생활 속의 미술의 구실	2		2	1	3	7				2	1	3

삶과 꿈 교과서는 <표-9>⁶³⁾의 내용과 같이 미적 체험 영역이 4개 단원 1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 교과서와 달리 ‘미적 체험’이라는 미적 체험 영역에 관한 도입 부분을 두어 단원 전반에 관한 내용 및 아름다움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 시키는 점이 특이하다. 학습 내용에 있어 자연과 조형물의 조형요소나 원리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 대신 ‘미적’, ‘미의식’등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다루었다. 또한 내용의 도입에 있어 양만리의 ‘허희산탄두망금화산’이라는 한시를 제시하여 문화적, 서사적인 부분이 미적 체험 영역에 포괄되면서 타 교과부분과 연계 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 타 교과서와 다른 점이다.

교과서 도판은 자연미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미적 체험’, ‘환경과 미의식 차이’ 단원이다. 식물 도판은 고사목, 노랑어리연꽃 동물 도판은 노랑뿔잠자

63) 김민경, 전계서, 2007 P.31

리, 학 기타 도판은 농촌 들녘, 방목 풍경, 송네 협만, 둔황 석굴 전경이 있었다. 자연과 조형성과 미적 요소를 이용한 미술품의 도판을 게재하는데 있어서 ‘학’과 연관된 그림, 무용, 도자기, 흉배, 건축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시하여 자연미의 활용에 관하여 시각적 요소를 체험하고서도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삶과 꿈 교과서는 8종 교과서 중 가장 많은 도판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하다. 단원의 내용 구성이나 도판에 있어 우리나라와 외국의 것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학습자가 다문화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자연경관이나 조형물에 있어 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몽골이나 에티오피아, 말리 등 제3세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삶과 꿈 교과서는 교학사와 마찬가지로 8종 교과서중 아르누보 양식을 다루어 놓았는데 교학사 보다는 양식에 대한 설명 비중이 크지는 않다.

미술과 문화에서는 문화의 다양성, 전통 계승과 창조, 시대정신의 표현을 분류하여 학습내용을 쉽게 구별 하고, 미술과 문화의 관계성을 타 교과서에 비해 확립시켜놓았다.

삶과 꿈은 전체적으로 페이지마다 게재해 놓은 작품을 타 교과서에 비해 상세히 작품 해설을 해놓아 학생 스스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다.

7) 시공사

<표-10>시공사 단위별 내용

구분 양식	교육과정 상의 내용 영역	학습내용	교 과 서 쪽 수	학 생 의 작 품	작 가 기 타 작 품	기 타 계	한국의 전통미술					자 연 및 자 연 물
							외 국 작 품	건 축	회 화	조 소 공 예	디 자 인 · 기 타 공 예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	미적체험	자연미, 조형미	2	1	1			1			1	1
	미적체험 표현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	2					2			2	4
	미적체험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2	2	2	2						
		미술이 된 마을	2		3	3	3	2			5	
사회속의 미술	표현 미적체험	사회를 읽는 눈	2		5	1	6	2				
		더불어 사는 삶	2	2	2		4					
		환경 디자인	1	1			1	1				
		마술과 관련된 직업	1	6			6					
		현대 미술	2		6		6	2				
재미있는 실험과 조형연습	미적체험 감상	창의적 사고	2		2	2	2	1			1	
	미적체험 표현	조형연습	2	6			6					1
자연에서 찾은 우리의 색과 재료	미적표현 감상 표현	전통자연염색	2	3			4				7	7
	미적체험 표현	봉숭아 염색	2	1	1		2		5	1	2	8
변형시키 는 즐거움 내 손으로	미적체험 감상	추상과 상상의 조형요소	2	2	6		8	4				1
꾸미는 예술계	미적 체험	예술제 준비	1			3	3					

시공사 교과서는 <표-10>⁶⁴⁾ 과 같이 미술의 각 영역을 분리하여 편성하기 보다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합하여 재구성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시공사 뿐만은 아니지만 다른 교과서에 비해 각각의 활동을 보다 더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타 교과에 비해 미적 체험 영역이 다양한 요소의 장르와 많은 작품들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미적 체험 중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 이해에 관한 내용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 ‘자연에서 찾은 우리의 색과 재료’의 2개 단원으로 부분 제시하였다.

또한 심화 학습을 추가하여 자연과 조형미를 더 세분화시켜 접근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단원의 학습 내용에 있어, 자연과 인간, 환경과 재활용 등을 강조한 단원, 공공미술과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컴퓨터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단원, 재미있는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조형 연습을 할 수 있는 단원, 예술제를 스스로 준비하여 디자인의 원리를 경험하고 깨우치게 하는 단원 등은 학생 스스로 미적 체험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자연 속 조형 요소나 원리를 다룸은 물론이고 자연과 부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키고 있는 도판을 수록하여 학습자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훼손의 상황을 인지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 보존 의식을 높여주는 구성이 특징적이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조형물과 공예 부분이 많이 다뤄진 것이 타 교과서와 다른 점인데 특히 ‘봉숭아물들이기’에서는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숭아나 포도를 이용하여 실제로 염색을 해보는 등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돋보인다. 이렇듯 각 활동에 심화·보충 학습을 두어 학습 주제와 관련된 여러 학습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64) 김민경, 전계서, 2007, P.33

교과서 도판에 있어 자연미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식물 도판은 들꽃, 호화, 치자, 소목, 꼭두서니, 황벽, 쪽풀, 봉숭아, 억새풀 동물 도판과 기타 도판은 하늘에서 바라본 동강, 나선형의 독, 손톱에 물들인 봉숭아, 고추 말리기, 짚가리, 풍경 사진 등이 있다. 자연을 순수 예술 작품 그 자체로 나타내며 미적 체험을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과거의 역사를 묻어 든 평범한 농촌에서 그 곳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현대의 미감을 살려 또 다른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 도판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대지미술과 사실주의 개념미술 등의 현대미술 용어가 간단히 정리되어 있어 학생들이 쉽게 접근 하도록 게재되어 있으며, 외국작가 크리스토의 작품에 대한 내용을 토의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며 심화학습을 유도시켰다.

매 단원마다 각 활동에 심화·보충 학습을 두어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토의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8) 천재교육

<표-11>천재교육 단원별 내용

구분 양식	교과 과정 상의내용영 역	학습내용	교 과 서 쪽 수	학 생 의 작 품	작 가 작 품	기 타 계	한국의 전통미술						자 연 및 자 연 물
							외 국 작 품	건 축	화 화	조 소	디 자 인 · 공 예	기 타 계	
미적체험 의 세계	미적체험	미적체험의 의미와 대상 환경과	2		3	3	3	1			1	2	3
자연과 생활속에 서	미적체험	미의식의 차이	2		3	3	5				1	1	8
	미적체험	미술과 문화의 관계	2								2	2	4
문화적 가치와 미적 가치	미적체험	문화적 환경	2		2	1	3	6	3		2	3	8
		미적 가치, 문화적 역할	2	1	1		2	5	2				2

천재 교육의 교과서는 <표-11>⁶⁵⁾ 와 같이 미적 체험 영역이 2개의 단원 10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과 꿈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미적체험의 세계’라는 미적 체험영역에 관한 도입 부분들을 두어 미의 의미, 미의 자각, 미적 체험의 대상에 관한 내용을 다룸과 동시에 단원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학습 내용에 있어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에 관한 내용은 ‘미적체험의 세계’, ‘자연과 생활 속으로’ 단원으로 생활용품에 반영된 자연미와 조형미에 관하여 두 페이지로 다루는 점은 타 교과

65) 김민경, 전개서, 2007, P.35

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교과서 도판을 제시함에 있어 상호 연관성이 깊은 자연미와 조형미의 관계나 생활 속에서 응용된 모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지미술이라는 장르로서 번개 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 현상의 순간을 나타내는 새로운 도판을 게재하여 새로운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타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도판을 제시하고 있어 또 다른 대지미술의 다양한 영역을 설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미술의 고유 영역뿐만 아니라 21C 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매체들로 표현되고 있는 컴퓨터, 사진, 영상 등의 영역을 보다 심도 있게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도록 한 것이다.

문화적 역할에 관한 내용들은 현대인들의 문화소비,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현재의 대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3. 현대 미술에서의 미적 체험

우리나라의 공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된 일제 강점기에 미술 교육은 철저한 모방학습으로 이루어졌다. 주로 교과서 작품을 묘사하는 임화 학습으로 이루어졌고, 감상 활동에 있어서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해방 이후에 예술 지향적 미술 교육이 있게 되었다. 이후 우리는 일곱 차례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현재는 또 다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로웬펠드가 주장한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은 제 2차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제6차까지 계속 강조되어 왔다. 그의 미술 교육 사상은 성장이란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며 미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조화로운 인간의 형성에 있다고 보아 창의적인 자유로운 자아를 육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미술 활동은 어린이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조화로운 인간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했던 그는 전 세계의 미술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미술 교육을 인간을 교육하는데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미술 교육 방법은 미술 감상과 이해교육을 소홀히 하고, 창의성을 강조하다보니 교사의 미술 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 교사의 방임적 태도를 낳게 하였다. 그래서 1960년대 초 미술 교육자들은 창의성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 하면서 미술 교육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이해 중심의 미술 교육은 표현 창의성 중심의 미술 교육의 방임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한다. 중심학자인 아이스너는 로웬펠드와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는 미술이 하나의 독립된 교과임을 주장하면서 학문으로서의 미술 교육을 제시한다. 또한 수업에서 최종 작품은 어린이의 학습과정을 추론하는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며 미술 학습에서 표현기능 뿐 아니라 미술을 지각하고 이해해야하는 이유와 언어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미술 표현을 보완하여 미술 이해 및 미술 감상 교육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

술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이해시키고 작품의 결과와 미술 문화를 감상시켜 미술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밖에 펠드만, 맥피, 그리어 등과 통합적인 미적 체험 교육을 하고자 주장한 브라우디, 피셔, 스미스 등이 미술 이해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왔다. 특히 그리어는 1984년 DBAE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며 기본적인, 통합적 체계적인 미술 교육을 주장하고 나섰다. DBAE는 미술 교육을 독립된 학문으로 보고 미술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술 표현, 미술 비평, 미학, 미술사를 미술 교육 활동에 적극 반영시켜 미술과 미술품에 대해 잘 알고 조형물과 자연물 등의 미적 특성에 잘 반응하는 교양인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⁶⁶⁾

이러한 미술 교육 이론은 우리의 미술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되어 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으로써 미적 감수성과 직관적인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심미안적 태도와 표현력,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아울러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미술의 생활화가 강조되고 생활 속에서 미술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또한 시각 문화 환경을 필수 학습요소로 포함하여 미적 체험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통미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종합적인 감상능력을 길러 주기위해 미술작품과 미술 문화요소를 포함시켜 감상 교육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미술과 교육을 통해 주변 세계의 아름다

66) 김남수, 「다양한 미적 체험을 위한 현대 미술 활용 방안」,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03, P.123

움을 인식할 수 있는 미적인 안목을 키우고, 생활 속에서의 미술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북돋우며,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과정을 등 미술 표현에 필요한 학습 요소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표현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67)

1) 현대 미술의 양상

① 현대미술에 대한 정의

현대 미술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술가들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세기, 인상주의가 미술계에 변혁을 주도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객관적 사실주의에서 벗어나 주관성이 강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연의 모든 것은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생각에 입각하여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시지각을 통해 즉각적으로 들어온 장면을 묘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인상주의 이후의 회화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20세기에는 화가들이 그들의 화법을 확장시키거나 서로 반작용하면서 회화사가 발전해 나갔으며 관습적인 회화의 반발한 이들의 행동으로 화가는 개인적인 스타일을 실험할 권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확립시켜놓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수 세기 동안 내려온 공허한 관습 대신 근대세계와 빛나는 자연을 무대의 전면 에 떠오르게 했다.68)

67) 교육인적자원부

68) 김호경 옮김,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2002, P192

이러한 정신은 신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로 이어진다.

작가개인의 주관성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분위기에 집착된 그림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신인상주의자들은 사라진 형상성을 살리고 빛과 색채의 효과를 더욱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끌고 나간다. 후기 인상주의 대표적인 작가는 세잔, 고흐, 고갱인데 이들은 각자의 뚜렷한 개성을 살린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고갱은 그림에 있어서 현대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평면성에 관심을 둔다.

이 평면성을 회화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으로 르네상스 이후 지금까지 미술사를 지배해 왔던 환영적인 그림의 전통적인 방식에 반기를 드는 매우 혁신적인 일이다. 이들 후기 인상주의의 특징을 요약하면 매우 개성이 강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과 주관성이 강한 색을 활용함으로써 색채의 자율성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이후 세잔느는 큐비즘, 고흐 표현주의, 고갱은 상징주의로 그 영향을 주며 현대 미술의 분수령이 되어 주었다.⁶⁹⁾

세잔느의 큐비즘은 이들의 대상을 접사(接寫)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하여 화면을 파악함으로써 조형성을 매우 풍부하게 하였다. 이것은 분석적 큐비즘 시대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 때 나타난 특징이 파베에 풀레한 수법의 오브제 활용이다.

20세기 현대 미술은 세계 대전을 두 차례나 경험하고 국제간의 긴장과 대립, 기계 문명의 도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하고도 다양한 변화의 시대를 가져온다. 현대 미술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개척하려는 노력으로 표현 양식이나 재료, 기법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표현과 다양한 미술 표현을 가져오는데 다다와 초현실주의가 그러하다. 다다는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오는데 이 전쟁은 지금까지 형성 되어온 집단적 미술 활동을 해체하며 지금까지 서양문화를 이끌어온 이성과 합리주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이는 기성사회에 대한 부정과 파괴로 이어지며 지금까지 억눌린

69)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일지사, 1987, P.42 재인용

잠재적 본능과 욕구를 분출시켜 나간다. 드디어는 이성과 합리주의 폐기를 선언하며 부정부주의와 예술적 허무주의가 되어 반예술 활동을 지향하게 된다. 여기에 반예술을 넘는 예술도 아닌 비예술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현대 미술을 더욱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초현실주의는 일상적인 상태와 대조적인 꿈과 정신세계에서 의식에 의해 속박 받지 않는 상상력과 권리회복과 궁극적으로는 인간정신의 해방을 목표로 이루어진다. 이들 회화는 프로타주, 데칼코마니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자동기술적인 표현 작업과 정밀한 사실적 기법으로 기묘하고 환상적인 꿈과 사물을 일상적인 상태에서 이탈시켜 전혀 엉뚱한 장소에 매치하는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자극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은 이성적 통제가 없는 상태, 모든 예술적, 도덕적 속박에서 벗어난 꿈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그려내고자 하였다.⁷⁰⁾

② 추상미술

1890년 모리스 드니는 ‘회화는 보이는 것의 재현이기 이전에 질서를 가진 색채로 덮힌 하나의 평면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외형의 묘사나 서술적인 표현에서 떠나 추상미술도 들어가고 있음을 보이는 말이다. 앞서 전개된 표현주의와 야수주의는 대상을 왜곡하고 과장하여 내면적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여 주정적 추상의 기호가 되어주었다. 반면 피카소와 브라크의 큐비즘은 대상을 선과 평면과 같은 기본적인 형태로 포착하여 나감으로써 기하학적인 추상의 길을 열어주었다.⁷¹⁾

기하학적인 추상은 현대 미술의 산유물만은 아니다. 중세와 이집트의 회

70) 김남수, 「다양한 미적 체험을 위한 현대 미술 활용 방안」,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03, P.125 재인용

71)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1999, P.32 재인용

화, 원시시대의 유물에서 발견되는 문양 이슬람의 기하학적인 장식, 우리나라의 토기와 와전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도형과 상징적 기호들을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 이미지를 벗어난 것들이다. 이와 같이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발견되는 기하학적 문양을 인간의 조형욕구이자 창조능력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추상미술이다. 현대에서 이루어진 기하학적 추상은 순수추상에 상당한 접근을 보이는 순수주의, 오르피즘, 미래주의를 지나 절대주의, 신조형주의에서 절정을 이룬다. 절대주의는 일체의 재현활동을 거부하고 가장 단순한 구성을 통해 순수 감정을 추구해 나간다. 말레비치는 대상의 부재를 통한 관념화된 추상화를 이룩하게 되는데,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을 피카소의 기하학적 화면에서처럼 단순화되고 최소화된 대상의 표상으로써가 아니다. 대상의 부재를 의미한 순수한 사각형이다. 그는 감수성을 미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그것을 통해 순수한 표현의 극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신조형주의는 피에트 몬드리안이 제창한 미술 이론을 토대로 네덜란드에서 성행한 미술운동이다. 그는 대상을 극단적으로 분해하며 형태를 해체 시켜나간다. 여기서 대상의 구조적 파악을 통한 극단적인 추상을 전개하여 기하학적 선과 단순한 색채의 순수한 관계를 주장하였다. 그의 화면 속에 궁극적으로 남겨진 수평과 수직은 자연을 초월하여 보편적 조화를 담아내는 질서로서 신지학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다. 명확한 삼원색과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그의 화면은 매우 금욕적이며 언뜻 비슷하게 보이지만 각각 정확하고 완전히 다르게 계산되어 배제되고 있다. 그는 순수한 사실성을 조형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형태로 그 형태의 불변적 기본 요소로 환원하여 기본적인 선과 색의 순수한 관계, 즉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기본색을 활용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합리적이고 이지적인 기하학적 추상에 비해 주정적 또는 서정적 추상은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표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유럽 대륙의 앙포르멜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추상표현주의를 말한다. 물질성의 비정형이란 의미의 앙

포르멜은 마티에르와 물질성이 매우 강조되는데 전쟁의 참혹함이 짓눌려진 인간 내면의 극한성을 실존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생생하게 표현한다. 즉 앵포르멜 작가들은 시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감성적 요소들을 즉흥적 행동을 쏟아냈다. 추상 표현주의는 ‘그린다’는 원초적 행위 자체를 중요한 표현요소로 삼고 캔버스를 하나의 장으로 삼았다. 2차세계대전 이전의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여 유기적, 표현적,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탄생된 미국적 표현양식이다.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과 매우 상통하는 면을 지니고 있어 인위적 조작을 배제하고 무의식적 자동성을 추구하며 행위를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앵포르멜은 이미지의 배제, 즉흥성, 생동감, 자동성 등으로 요약하고 앵포르멜의 물질성의 강도를 새로운 재료의 실험이라는 이름 아래 비회화적인 물질을 회화 속에 그린다는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어 결과로서의 작품보다 그리는 과정의 행위의 순수성을 도입시켜 주었다.⁷²⁾

③ 설치미술

피카소는 “미술은 더 이상 창조가 아니라 발명”이라고 하였다. 그 자신도 부서진 자전거를 활용하여 ‘소’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이런 기발한 착상은 상상을 뒤집은 실험적 사고 덕분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실험적 활동이 현대 미술이 시작된 20세기 무수히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설치도 매우 특별한 형태로 미술계에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요즘에 와서 대형기획전이나 국제전을 보면 설치가 아니면 미술이 아닌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설치가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설치는 전시 공간 등의 여건에 맞추어 작품을 만들어 작품을 만들어 내는 현장 위주의 작업 활동

72) 김남수, 「다양한 미적 체험을 위한 현대 미술 활용 방안」,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2003, P.125

을 말한다. 설치 미술은 오브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 속에 이루어지는데 오브제는 현대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현대 미술에서 오브제는 그 자체가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전취적인 창작태도와 관련하여 발전되고 있으며 설치된 바로 이 오브제를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여 배열하고 배치하는나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1960년대 말 추상표현주의, 미니멀아트가 보여주는 형식적이며 폐쇄적인 것에 반발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 실험이 등장하게 된다. 퍼포먼스 프로세스아트, 대지예술, 환경예술 등이 계속해서 출현함으로 써 설치미술은 더욱 확산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⁷³⁾

④ 공공미술

공공미술(Public art)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영국의 존 웰렛이 1967년 『도시 속의 미술 Art in City』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미술 디렉터, 큐레이터, 평론가, 미술가 등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향유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 개념으로서 공공미술을 고안하였다. 공공미술은 기존의 전시장 속에 있던 미술을 전시장 바깥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특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특성적 미술(site-special art)’로 정의된다. ⁷⁴⁾

73) 김남수, 전계서, 2003, P.127

74) 장연옥, 「중등미술교육에서의 공공미술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P.5

2) 현대미술이 미적 체험 영역에서 보여질 수 있는 활동

미술수업은 미술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감성과 미적 안목을 형성시켜주어야 한다. 이런 미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적 체험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이런 다양한 미적 체험의 한 방법으로 현대 미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미술수업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현대 미술 속에는 다양한 미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 요소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서로 어떤 반응과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현대 미술 속에는 선과 색, 형태 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요소가 주제 표현과 어떤 관련 속에 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확장되는 미의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용이하다. 현대에 와서는 미의 개념이 단순히 '아름답다'로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주관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전에는 전혀 미의 범주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미의 범주 속에 들어와 미의 개념이 매우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확장된 미의 개념은 현대 미술이 주도하기 때문에 현대 미술을 감상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새로운 미의식을 깨우쳐 줄 수 있다.

셋째, 미술가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린이가 아닌 중·고등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 미의식의 체계가 잡혀있으므로 어떠한 것이 더 아름답고 더 세련되고 더 창의적인가를 찾아보게 된다. 현대 미술가들을 보면 새로운 사고와 상상력으로 개성을 살려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이 뚜렷하게 형성되어있는 시기이므로 현대 미술을 체험함으로써 미술가적 심성을 경험하는 동시에 보고 느끼는 활동을 통하여 현대적인 미적 안목을 가지고 시각적 세계를 한 층 더 심도 있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비평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미술 이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고 느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언어표현력이 매우 필요하다. 현대 미술을 감상하고 서로의 의견을 발표 할 때 현대 미술에 등장하는 미술 용어들을 습득하여 자신의 미의식을 언어화하여 표현 활동과 감상활동이 필요함으로써 조사 학습과 반복을 통하여 체계적인 언어의 표현력을 높힘으로 한층 더 전인적인 인간에 다가갈 수 있다.

다섯째, 미술사의 전개 과정속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열린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현대 미술에 등장하는 미술은 단순히 잘 그려지고 만들어진 작품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며 다채로운 작품들이 등장한다. 새로운 변화는 창의성과 개성 그리고 열린 사고의 확장과 동시에 가치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75)

4. 교과서 속의 현대 미술

중등교과서 속에서는 다양한 현대 미술작품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7차 교육개정안이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고등학교 8종 교과서 위주로 현대 미술이 어느정도 제시되고 있는지 되짚어보려 한다.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을 겪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더 심도있는 현대 미술 작품들을 교과서를 통해 접할 수 있으며 이런 작품들은 새로운 시각문화라는 입장에서 확장된 미술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미적 안목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미적 체험 영역에서 제시된 작품 가운데 필자는 현대미술로서의 논쟁이 시작된 인상주의 작품 이후를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평면 작품

75) 김남수, 「다양한 미적 체험을 위한 현대 미술 활용 방안」, 2003, 미술교육논총 제10집,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P.136 재인용

이외에 입체작품인 조각, 건축, 대지미술, 설치미술, 개념미술, 비디오아트를 포함한다. 단 사진, 공예품, 한국화 등은 범주를 분류하기 어려워 필자의 임의대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1) 교학사

<표-12>교학사 미적체험영역 현대 미술분류

미술사적 위치	작품명	작가명	학습내용
개념미술	나무집(섬유, 유채)	스마트(Smart, Sally /1960~/오스트레일리아)	·조형의 요소와 원리차이보기
조각	구름을 닮은 토르소(대리석)	이정자(1940~/한국)	·자연미가 적절하게 활용된 예
현대건축	유리피라미드 (1989작)	아이오밍페이(Ieoh Ming Pei/프랑스)	·자연물과 조형물의 차이점
설치미술	호랑이(설치)	홍현숙(1958~/한국)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예
누보레알리즘	미의 세 여인(폴리에스테르, 환경조각)	생팔(Saint Phall, Niki de/1930~/프랑스)	·아름답게 꾸민 환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향
공공미술	담장의 벽화	김광한(1961~/한국)	·주변 생활에서 공간미술의 활용
공공미술	달리는 도시철도 문화 예술관	와우프로젝트-인포아트 코리아	·미술의 다양성
아르누보 건축	브뤼셀 타셀 호텔(주철재 장식)	오르타(Horta, Victor/1861~1947/벨기에)	·장식 양식과 평면과의 유기적인 연관성
아르누보	옘(석판화),1896 작	뮈샤(Mucha, Alphonse/1860~1939/체코)	·선의 다양성
아르누보	컵(철,에나멜)1900작	버닐(Verneuil,M.P./벨기에)	·일상생활속에 표현되어지는 미술 관련품 찾아보기

현대 미술의 분류를 살펴본 (주)교학사에서는 자연미와 조형미 부분에서 조각작품과 설치미술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의 피라미드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교제시하여 현대 미술에 미친 영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미술과 아르누보가 집중적으로 제시되어있다.

2) 교학연구사

<표-13>교학연구사 미적체험영역 현대 미술분류

미술사적 위치	작품명	작가명	학습내용
옹아트	원의 회전(실크스크린)1996 작	패카낙(Pecanag/유고슬라비아)	·자연에서 찾아볼수 있는 조형의 요소와 원리의 활용
건축	동시 변조(구겐하임 미술관 설치)1999작	백남준(1932~2006/한국)	·조형요소의 원리와 삶의 공간에 적용된 예
공공미술	강촌휴게소	김춘수(1946~/한국)	·일상생활에서 체험할수 있는 미적요소
공공미술	‘미디어 시티2000’지하철 프로젝트		·현대인의 삶과 공간과 미술과의 관계 탐색
리얼리즘	UR-권씨(콜라주)1991 작	이종구(1954~/한국)	·표현된 작품 속의 문화, 사회구조 탐색해보기 ·표현과 재료 연구
팝아트	로큰롤 악단(설치) 1964작	시걸(Segal,George/1924~2000/한국)	·사물을 새롭게 재배치해보기
입체주의	건축 공사장의 인부들(유채) 1950작	레제(Le'ger, Fernand/1881~1955 /프랑스)	·사물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져보기

현대 미술의 분류를 살펴본 교학연구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경향의 현대 미술의 작품들이 많이 게재되어있다.

한 개념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장르의 현대미술작품을 게재하였다.

다른 교과서 중에 미적 체험 영역 부분에 팝아트가 유일하게 게재되어있다.

3) 금성출판사

<표-14> 금성출판사 미적체험영역의 현대 미술 분류

미술사적 위치	작품명	작가명	학습내용
포스트모더니즘	시인(리놀륨판)1996작	보트(Bot,G.W/1954~/호주)	·재료의 다양성의미
설치미술	선택(나무에 에나멜/1998작)	이주용(1975~/한국)	·재료의 사용
건축	안양 중앙 성당(1997 작)	김영섭(1950~/한국)	·대칭의 조형 원리 알아보기
극사실주의	무제(아크릴화/1997작)	김홍주(1945~/한국)	·시대성의 강조표현
포스트모더니즘	도큐멘타X(1997작)	코글러(Kogler,Peter/1959~/오스트리아)	·시각적인 요소에서 찾아볼수 있는 조형미탐색
공공미술	‘달리는 도시 철도 문화 예술관-와우 프로젝트’		·일상생활에서 느낄수 있는 미적인 공간알아보기

현대 미술의 분류를 살펴본 금성출판사는 다소 여러 장르의 현대미술작품을 게재하고자 하였다. 극사실주의의 오브제 작업, 색면추상적인 느낌의 판화작품 등이 다른 교과서와 달리 미적 체험 영역에 제시되어 있어 새롭게 느껴진다.

4) 대한교과서(주)

<표-15>대한교과서(주)의 미적체험영역의 현대 미술 분류

미술사적 위치	작품명	작가명	학습내용
비디오아트	동시변조(구겐하임 설치)	백남준	·자연물에서 조형 원리찾아보기 ·조형물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건축	성가족 성당(1884작)	가우디(Gaudi Cornet, Antonio/1852~1926/에스파냐)	·단순화하거나 변형시킨 구조물 생각해보기 ·재질의 느낌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
현대건축	유리 피라미드(루브르미술관 앞 설치/1989작)	아이오밍페이(Ieoh Ming Pei/미국)	·미술의 문화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능 ·전통미의 계승과 발전

대한교과서(주)는 현대미술작품이 타 교과서들에 비해 다소 적은 양의 작품들을 게재하고 있다. 미적 체험 영역자체가 교과서안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오히려 표현활동 부분에 현대미술이 집중적으로 게재되어있다.

5) 두산

<표-16>두산의 미적 체험 영역의 현대 미술 분류

미술사적 위치	작품명	작가명	학습내용
설치미술	반달(대리석/1976작)	김정숙(1971~1991/ 한국)	·자연과 조형물의 미적 가치발견해보기
현대건축	구겐하임 미술관(에스파냐 1997작)	게리(Gehry, Frank O./1929~/미국)	·자연미와 조형미조화 ·문화적인 역할
설치미술	꽃 모양 의자(설치/1990작)	마사노리 우메다(1941~/일본)	·자연미의 조화
설치미술	만물상의 바람 소리(혼합/1999작)	안성복(1943~/한국)	·자연의 미적 요소에서 조형물의 기능 알아보기
초현실주의	훈데르트바우서 하우스(건축/1983~1 985작)	훈데르트바서(Hund ertwasser, W.Hofman/1928~2 000/오스트리아)	·생활 속에서의 미술의 기능과 역할의 이해해보기

현대 미술의 분류를 살펴본 두산은 설치미술작품 위주로 도판을 제시해놓았다. 또한 현대 건축물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건물들 속에서 미적 요소를 발견하는 체험을 하도록 하는 시도하고 있는 점을 특색으로 볼 수 있다.

6) 삶과 꿈

<표-17> 삶과 꿈의 미적체험 영역의 현대 미술 분류

미술사적 위치	작품명	작가명	학습내용
현대건축	리용 공항 역사(1989~1994)	카라트라바(Calatrava, Santiago/1954~/에스파냐)	·조형의 원리탐색하기
신인상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유채)/1886작	쇠라(Seurat/1859~1891/프랑스)	·신인상주의는 무엇인가 ·점묘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현대건축	유리피라미드(설치, 1989작)	페이(pei, I.M./1971~/프랑스)	·자연물과 조형물의 차이점
	페레스트로이키(유채/1988작)	불라토프(Bulatov, Eric/1933~/러시아)	·시각포스터의 일상화
추상미술	피난열차(유채/1951작)	김환기(1913~1974/한국)	·문화의 시대정신을 찾아보기
키네틱아트	공간-역학 조각(1967작)	쉐페르(Schofer, Nicolas/1912~1992/프랑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미적 요소 알아보기
옵아트	합성도니 모나리자(그래픽/1989작)	이바랄(Yvaral/1934~/프랑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시각적 패러다임 활용
아르누보	타셀호텔(실내장식/1893)	오르타(Hoeta, Victor/1861~1947/벨기에)	·일상에서 보여지는 아르누보양식을 관찰해보기

현대 미술의 분류를 살펴본 삶과 꿈은 다양한 현대미술장르가 개재되어있다. 키네틱 아트, 옵아트는 다른 교과서에 반영하지 않은 미적 체험 영역부분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주어지는 영향성과 표현적인 요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시공사

<표-18>시공사의 미적체험 영역의 현대 미술 분류

미술사적 위치	작품명	작가명	학습내용
설치미술	바람(설치/1974작)	이승택(1932~/한국)	·재료의 다양성연구
현대조각	일어서는 땅(부조설치/1995작)	임옥상(1950~/한국)	·조형성의 원리를 탐색하기
대지미술	나선형의 독(1970작)	로버트 스미스슨(Rober Smithson/1938~197 3/미국)	·대지미술과의 관계 ·자연환경과의 조형미알아보기
대지미술	길게 뻗은 울타리(대지술/1976 작)	크리스토 야바체프(Christo Javacheff/1935~/미 국)	·자연과의 미술적 환경요소의 상호관계성
설치미술	성혈(설치/2000작)	윤석남(1939~/한국)	·자연과의 미술적 환경요소의 상호관계성
설치미술	무제(흙 설치/2000작)	이형우(1955~/한국)	·자연과의 미술적 환경요소의 상호관계성
설치미술	풍장(설치/2000작)	임충섭(1941~/한국)	·자연과의 미술적 환경요소의 상호관계성
설치미술	낮선 과거로부터(흙 설치/2000작)	조덕현(1957~/한국)	·자연미와 조형미의 탐색
극사실주의	한국전쟁참전기념조 형물(브론즈 설치/1995작)	프랭크 게일로드2세(Frank C.Gaylord II/1928~ /미국)	·작품의 특징 ·공공조형물과 우리의 생활 ·역사적 이야기
한국근대미술	구두땀이 소년(유채/1953작)	이수억(1918~1990/ 한국)	·시대의 정신성과 문화적인 요소 알아보기
설치미술	자연+인간(오브제/1 995작)	김광우(1941~/한국)	·자연환경과의 조화
공공미술	화장실에는 환희가	엄혁용(1961~/한국)	·공공미술이란

	있어요(지하철에 설치/2000작)		무엇인가 ·미술속의 아름다움 추구
공공미술	별이 뗏어요(지하철에 설치/2000작)	서정국(1958~/한국)	·상상력 표현
공공미술	역사야 노을자(지하철에 페인트/2000작)	임옥상(1950~)정세 학(1960~)/한국	·일상속에서의 미술의 기능발견하기

현대 미술의 분류를 살펴본 시공사는 미적 체험 영역에서 언급한 자연물과 조형미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인지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지미술과 설치미술, 그리고 일상에서 접하기 쉽게 정의된 공공미술의 도판이 많이 수록되었다. 대지미술부분이 특히 심화학습에 심도있게 게재되어있어 학생들이 교과서를 시각적으로 체험하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진 점이 특이했다.

8) 천재교육

<표-19>천재교육의 미적체험영역의 현대 미술 분류

미술사적 위치	작품명	작가명	학습내용
대지미술	번개치는 들판(설치/1974-1977 7작)	드 마리아(De Maria/1935~/미국)	·자연현상과 미술품의 조화
설치미술	뮌스터조각전(설치/1997 997작)	뷔렌(Buren/1938~/ 프랑스)	·환경에서 접할수 있는 조각들
인상주의	해돋이 인상(유채/1872작)	모네(Monet, Claude/1840~1926/ 프랑스)	·색채가 주는 미적 가치
현대건축	리옹공항 역사(1989-1994)	칼라트라바(Calatra va Santiago/1954~/에 스파냐)	·조형성의 원리 탐색
대지미술	점판암 갈라진 줄(돌/1988작)	골즈워드(Goldswort hy,Andy/1956~/영 국)	·자연으로부터의 재발견
설치미술	백화점 조형물(철)	유영교(1946~/한국)	·일상생활에서 찾아볼수 있는 미술의 기능
설치미술	자연(천,나뭇가지)	원보연(학생작품)	·자연과의 조형성
공공미술	내 코가 어디갔지?(수수깡/2000 000작)	서정식(1959~,지역주 민)행사포스터(예술 과 예술원)	·참여기능 미술의 의미
복수예술	아프리카의 메아리(포스터,실크 스크린/1998 작)	트록슬러(Troxler,ni klaus/1947~/스위스)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생활속 응용알아보기

현대 미술의 분류를 살펴본 천재교육은 설치, 대지미술의 이미지를 제시하였으며 번개치는 자연현상의 도판을 대지미술의 예로 제시하여 직접적인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도판이라는 느낌을 준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미적 체험영역의 문제점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적 체험영역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작품을 분류해본 결과 교육현장에서 어울리지 않으며 적용하기 미비한 문제점들이 보였다.

첫째, 미적 체험 영역은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 분석에 의하면 각 영역간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고 표현 영역과 감상영역은 다른 영역과의 통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하지만 미적 체험 영역은 표현이나 감상영역이 모두 미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상광성도 있어 적절하게 나뉘지 못하는 영역 분석상 오로지 체험만을 느낄 수 있도록 도판이 게재 되어있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타 교과와 통합적인 제시를 하며 구체적인 내용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적 체험 영역의 비중과 미적 체험 영역에 대한 수업 시수의 문제이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미술과 수업 시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큰문제이며 그 시간 안에서 또한 미적 체험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례하여 시간이 적게 배당되어있다는 점이다.

체험이라함은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특성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영역인데 고등학생 1학년의 수업 비중은 1시간에 불과하다. 간접적인 수업의 체험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직접적인 체험이 확실히 필요한 수업시간과 교과서자체의 페이지수를 보아도 미적 체험관련 수업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현대 미술의 다양성이 워낙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등으로 인하여 외국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게재되어있지 못하는 점

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작품 또한 중복되는 사례가 많고, 8종 교과서에서도 외국작가의 작품과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 중복되는 경우가 현저히 발생되어있다. 이것은 현대 미술의 다양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육매체인 교과서에 나타내어져서는 안 될 문제일 것이다.

미적 체험이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관의 상호교류로 미적인 가치를 서로 향유하는 것인데 미술교과에서 미적 체험은 오로지 시각적인 요소만 다루고 있어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미적 감상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술 교육과정은 전인적 인간 육성이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적인 요소만이 아닌 음악, 문학 등 여러 영역과도 연계될 수 있는 미적 체험의 이미지들이 함께 게재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미술교육은 표현력 신장, 창의성 기르기, 다양한 미적체험을 통한 미적 안목 기르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표현 수단 중의 하나가 미술이라고 본다면, 미술교육은 자아개발, 자아 신장을 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인간 성장 발달과 인격 형성에 깊은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교과와 마찬가지로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도 역시 바람직한 인간 형성이 될 것이다. 이 바람직한 인간이란 지, 정, 의를 골고루 갖추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느낌은 갖는 것에도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느낌은 감정과 지각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몰아의 정서를 자극했을 때 일어나게 되며 이것은 미술의 미적체험 상태와 동일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미적체험은 미적 대상을 만나 감각적인 쾌감이나 만족감을 동반하게 되는

것으로 그것을 관조하는 사람의 반응과 함께 정서를 환기시킨다. 주체가 객체를 바라보며 직관 또는 직감의 태도 속에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실현되는 특수한 심적 태도와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인적인 활동은 그 횟수가 많을수록 미적 안목을 높이며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미적 체험이 미술수업 현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고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선 교육현장에서 제일 처음 사용되어지는 교육매체인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미술 교과서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미적 체험 영역에서 현대미술의 이미지를 분류, 정리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미적 체험의 성격과 미적 체험의 필요성을 분석 및 정리하였으며

제Ⅲ장에서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출판사별 미술교과서의 미적체험 영역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현대 미술의 개념 및 미술교과서 미적 체험 영역에 속한 현대 미술을 분류, 정리하였다.

제Ⅳ장은 Ⅱ,Ⅲ장의 연구를 토대로 결론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하여 미적 체험 영역이 더욱 확대 발전해야함을 느꼈다.

첫째, 미적 체험에 대한 개념이 다의적으로 설명되고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적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의 시사점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둘째, 미술교과의 시수가 다른 교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이에 따라 미적 체험 영역이 할당되는 시간 역시 너무 적다.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미술과 수업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줄어든 시간만큼 미술과 내용 영역의 할당시간이 줄어든 셈이다. 내용 특성상 미적 체험은 더구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비해 고등학교 1학년 미술과 배정시간은 1주 1시간으로 배정되어있다. 즉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셋째, 교과서에서의 체험 내용(Content)은 시각적인 체험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일반적으로 순수예술과 실용예술로 구분되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것과 향유할 수 있는 것,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교과서 자체에서도 시각적인 요소들만이 수록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험이 이루어져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속에서의 미의식은 언제나 변화해가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이 문자보다는 시지각의 문화로 많은 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속에 미래에는 더욱 더 높은 미적 안목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시대에 맞는 발달된 미적 문화인으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미적 체험을 통하여 전인적인 활동영역을 늘려나가고 미적 안목을 높임과 동시에 정서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미적 체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미적 체험을 통해 미술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술적 감상과 미적 안목을 형성시켜야한다.

둘째, 편협한 체험활동과 감상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미적 체험, 표현 활동, 감상 활동이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교과서 도판 구성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확대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미적 체험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교육현장에 임해야 할 것이다. 즉 교사는 미적 체험에 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자세를 필요로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의 교육현장에서는 미술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일상생활의 중심으로서 미적 체험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일생은 불과 수십 년이며 그 중 미적 체험을 하고 감동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미적체험에 대한 교육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미술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식을 미술을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제언에 불과하지만 이 연구가 후속 연구에 조금이라도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교과서

- 노영자 외 1인 공저, 『고등학교 미술』, (주)교학사, 2002
노영자 외, 『고등학교 미술지도서』, 교학사, 2002
김정희 외 2인 공저, 『고등학교 미술』, 교학연구사, 2002
한운성 외 2인 공저, 『고등학교 미술』, (주)금성출판사, 2002
이현표 외 6인 공저, 『고등학교 미술』, (주)대한교과서, 2002
고승혜 외 4인 공저, 『고등학교 미술』, (주)두산, 2002
이윤구, 『고등학교 미술』, 삶과 꿈, 2002
홍선표 외 4인 공저, 『고등학교 미술』, 시공사, 2002
홍명섭 외 2인 공저, 『고등학교 미술』, (주)천재교육, 2002

국내문헌-단행본

- 교육부, 『미술과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015호 별책13, 1998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V)-체육, 음악, 미술-』, 1999
김정희 외 6인 공저,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2003
김춘일, 『미술과 교육론』, 을지출판사, 1988
C. Strikland 저·김호경 옮김, 『클릭,서양미술사』, 예경, 2000
R. Arnheim 저·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1996
J. Dewey 저·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2
Viktor Lowenfeled, Lambert Brittain 저·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 Eaton, Marcia Muelder 저, 유호전 역, 『미학의 핵심』, 동문선 문예신서, 1998
-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미진사, 1993
- 안연희, 『현대 미술사전』, 미진사, 1999
-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일지사, 1987
- 오병남, 『미학입문』, 서광사, 1986
- 유호전, 『미학의 핵심』, 동문선 문예신서, 1998
-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1994
- 이용대, 『여섯 가지 개념의 역사-미학에세이』, 이론과 실천, 1994
-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임정기 외,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2006
- Jerome Stolniz 저·오병남 역, 『미학과 비평철학』, 이론과 실천, 1991
- J. Dewey 저·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 하재창, 『미학의 제문제』,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6
- Hoffer, Charles R 저·안미자 역, 『음악교육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국내문헌-논문

- 김민경, 「미술 교과서의 미적 체험영역 분석 연구-고등학교 미술 교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김종원, 「미적 체험의 본질 연구-현상학적 존재론을 통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4

김향숙, 「미술감상 교육의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비평의 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9

이수경, 「국민학교 저학년 교육을 위한 미술적 접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이재선, 「미적 체험 교육의 현황과 개선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이화식, 「미적 체험 영역의 분석과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장연옥, 「중등미술교육에서의 공공미술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국내문헌-정기간행물

김남수, 「다양한 미적 체험을 위한 현대 미술 활용 방안」, 미술교육논총 제10집, 한국미술교과교육교육학회, 2003

김지균, 「미술교육연구 방법의 흐름과 방향」, 미술교육논총 제19-1호, 2005

김지호, 「미적 체험과 감상 교육」, 제18회 한국미술교육학회 동계 학술대회 발표자 원고, 한국미술교육학회, 2002

김진엽, 「미적 체험에 대한 미학적 이해」, 미술교육논총 11집, 한국미술교육학회, 2001

박소영 외, 『미술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원교육 13, 1997

이은적, 「미적 태도, 미적 체험의 개념 이해와 미술교육적 논의」, 미술교육 제21권, 한국미술교육학회, 2003

임정기·이성도, 『중등 미술과 교육학』, 교과교육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1996

임정기·이성도, 『미술과 교수 학습 이론의 발전 방향』, 교과교육 공동연구
결과 보고서, 한국교원대학교, 2001

ABSTRACT

Analizing texbook of high school 1st grade in the art experience

-Concentrate upon the modern art categorization-

Park, Kyeong Soon

Major in Fine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Fine art education aims at extension of power of expression, fostering originality, and fostering aesthetic appreciative eye through diverse aesthetic experience. But, to regard one of self-expression means of human beings as fine art, it can be said that fine art education may seek self-development and selfextension and that this has deep relation with human growth development and personality formation. In addition, equally with all the subjects, ultimate goal of fine art education will be desirable human being formation. This desirable human being is regarded as a people to have intellect, justice, and righteousness evenly and to feel own life beautiful and happy. However, I think that experience and training are necessary in feeling that own life is beautiful and happy. This feeling gets to arise in stimulating emotion of self-oblivion through materialization work of feeling and perception, and this may be regarded as the state to be same as aesthetic experience state of fine art.

Aesthetic experience arouses emotion with the reaction of people to contemplate it, as what is accompanied by sensual pleasant feeling or

feeling of satisfaction by meeting aesthetic subject.

This wholeman activity to be made in special mental attitude and consciousness to be realized with direct experience in the attitude of intuition or immediate perception that subjects look at object may heighten aesthetic appreciative eye and feel emotional feeling of satisfaction, as the number of times are many.

So as to understand how this aesthetic experience is presented and made in the spot of fine art lesson, this researcher tried to analyze textbook of high school which is education medium to be used first in education spot.

For more specified these things, necessity and feature of art experience are analysed and analysed and arranged in chapter II, it also analysed and compared in each textbook and concept of the modern art and art experience in textbook for classification in chapter III. Its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earch is described for improvement in chapter IV.

In eternal time flow, human life is only tens of years. To think how many times are there in the times to be able to do aesthetic experience and be moved by, we cannot help feeling importance of education for aesthetic experience anew. I think that fine art education should offer method for better life to learner through fine art in rapidly changing society. Though this is nothing but suggestion, I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fixing direction for following study.